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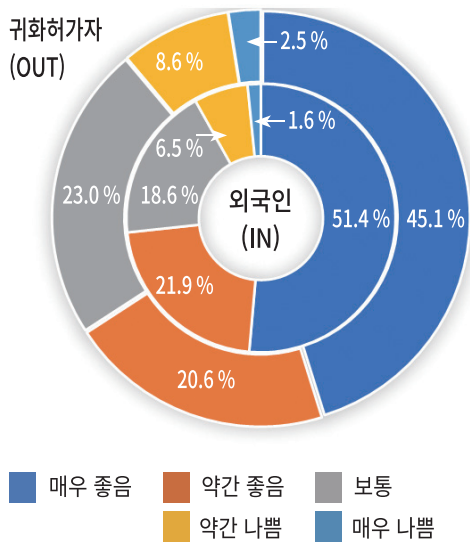


우리 곁의 이주민,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당연한 기본권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1946년 세계보건기구헌장에서는 “인종, 종교, 정치적 신념, 경제적 혹은 사회적 조건의 구별 없이 성취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리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갖는 기본적 권리”라고 선언하고 있다. 더불어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렇듯 건강은 인간이 누려야 하는 기본권이라는 주장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 병원 가기가 좀처럼 어려운 요즘 우리 곁의 이주민들을 돌아보면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하는 그 당연한 기본권을 잘 누리고 있는지 살펴볼 수 없을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법」의 제1조에서는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시행

<표1> 이주민 전반적인 건강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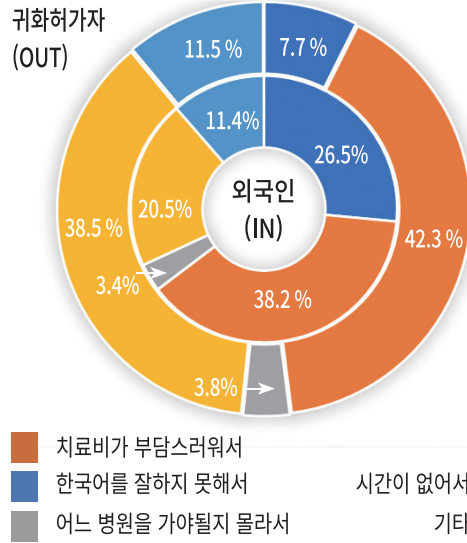
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이주민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듯 보이지만, 제109조에서는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조항을 두어 외국인인과 재외국민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9년 7월 16일부터는 6

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은 지역가입 당연가입 대상이 되었다. 얼핏 보면 이는 이주민들에게 반가운 소식 같지만 책정된 높은 보험료와 상세 조항을 살펴보면 마냥 좋아할 일만도 아니다. 일례로 직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비율만 보아도 알 수 있다.

한국인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비율이 26.8%지만,

<표2> 지난 1년간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 유무 및 이유



이주민은 43.4%로 집계되고 있다. 이주민의 지역가입자 비율이 높은 것은 임시직·일용직으로 일하거나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을 해주지 않는 5인 미만 소규모 일자리에서 일하는 이들이 많아서다. 이처럼 불안한 고용상태에 놓인 이주민들은 코로나 사태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지난 2020년 통계청이 조

사한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보고 자료에 따르면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를 묻는 문항에 치료비의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3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2 참조> 이는 보험에 가입되어도 여전히 높은 경제적 장벽, 의료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정보의 부족, 언어의 장벽, 문화적 요인 등 이주민에게 있어 병원 문턱은 여전히 높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이주민 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이주민들을 위한 지역 자치 단체별로 무료진료 보건 서비스 및 이주민들에게 최적화된 의료 공제회도 찾아볼 수 있다.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주민들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누려가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12-13페이지에서 계속

범 이주민 선교 흐름과 평창포럼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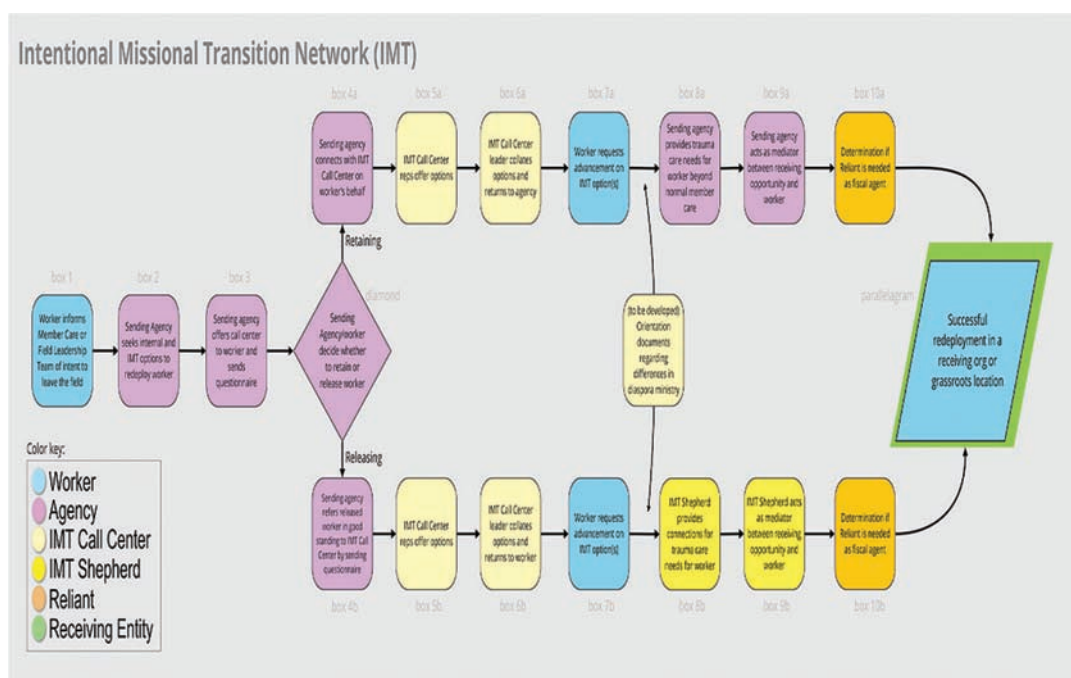
세계 선교계에 새롭게 던져진 화두 “이주민 선교”

미국 댈러스에서 귀국선교사 재배치를 위한 준비모임 가져

세계 선교계가 시대적 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혜를 모으고 있다. 지난 9월 21일 미국 댈러스에서 세계 선교계 귀국선교사의 사역 재배치를 위한 준비모임이 있었다. 디아스포라 선교단체인 NextMove의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30여 명의 사역자가 함께 대면과 비대면으로 참여하였다. 현재 세계현황에 맞게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조정하고 전환하기 위한 의견이 오갔다. 그중에 눈에 띄는 것은 NextMove의 대표인 존 벡스터 박사가 제안한 “선교 기관이 이주민 선교로의 전환에 도움이 되는 소개 자료”였다. 이 활동은 현재 미국 선교계가 어떤 변화 과정에 있는 지에 대한 실례이다.

‘이주민 선교로의 사역 전환’을 주제로 열린 평창포럼 2021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KWMA)는 10월 4, 5일 이틀간 강원도 평창군에 소재한 켄싱턴 호텔에서 ‘이주민 선교로의 사역전환’을 주제로 ‘평창포럼 2021’을 개최하였다. 4단계 방역지침이 적용되는 수도권을 벗어나 상대적으로 유연한 지역에서 철저한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대면으



로 진행되었다. 백신접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KWMA에서 공수된 코로나 검사 키트를 통해 음성 확인된 사람들만 참여하는 제약을 두었지만 200여 명이 참여하는 성황을 이루었다. 그만큼 이주민 선교로의 사역전환에 관심이 크다는 방증이었다. 참석자들은 이주민 선교사들, 귀국한 필드선교사, 지역교회 목회자들로 구성되었다.

포럼은 이주민 근로자, 다문화가정(결혼 이주여성), 유학생, 난민으로 4가지 영역의 관련 사역자들이 발제하였는데, 강사는 난민 영역에는 이호택 피난처 대표, 다문화가정에는 안현숙 목사, 근로자 사역에는 노규석 목사, 유학생 사역에는 지문선 목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했다. 발제 이후에 매시간 열띤 토론이 멘토들과의 원탁 모임을 통해 이루어졌다. 모두가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자신들의 의견도 활발히 내는 등 전체적으로 참석자들의 포럼 내용에 대한 이해와 만족도가 높았다.

새생명태국인교회 홍광표 목사는 준비위원장으로 본 포럼을 섬기며, 정통선교와 이주민 선교의 불가분한 관계를 설명하였다. 본인의 태국인 역과송 사역의 경험과 결과물을 나누며 참석자들에게 이주민 선교로의 전환의 가능성을 크게 도전하였다. KWMA 강대흥 사무총장은 “필드에서 철수하여 귀국한 선교사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것은 팬데

믹 때문만이 아니라 한국교회와 현 상황이 만들어낸 결과이기도 하다. 앞으로 KWMA는 이주민선교 관계자들과 귀국선교사 및 교단과 지역교회 대표자들과의 연합을 통해 선교사역의 전환이 요구되는 현 시대의 상황에 대처할 것이다”라고 의지를 나타냈다.

말레이시아 이주민 연합회(MDN)와 한국이주민 선교연합회(KIMA)간의 정보 공유와 상호연합

지난 10월 13일 말레이시아 이주민 연합회(Malaysia Diaspora Network/MDN)와 한국이주민선교연합회(KIMA)와의 줌 회의가 열렸다. 이 모임은 사전에 말레이시아 이주민 선교연합회에서

요청하여 KIMA 임원들이 모두 참여함으로 이루어진 회의였다. 이 회의에서 MDN은 말레이시아 이주민들의 상황에 대처하여 선교사역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고자, 한국의 이주민선교의 사례와 전략의 공유를 요청하였으며, KIMA는 흔쾌히 이주민선교관련 정보 공유와 상호 연합을 통해 아시아 이주민선교 네트워크를 이루자고 화답하였다. 말레이시아에는 한국 이주민들 외에도 많은 이주민이 체류하고 있다. 특히 MDN의 대표 Andrew Ng 박사는 이슬람국가인 말레이시아 정부의 종교적 제한과 지정학적인 상황으로 많은 난민이 거주하는 상황에서 이주민선교 전환으로의 돌파구를 찾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KIMA의 공동대표단은 급변하는 선교적 상황에서 국내 이주민선교의 사역과 전략을 국내외 필요한 곳에는 어디나 함께 공유하기로 하였다.

지난 두 달 사이에 미국과 한국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나타난 선교전환에 관한 관심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시대적 변화의 요구에 지혜로운 대처가 한국 선교계에 그리고 이주민선교에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이승혜 기자
seunghyelee@naver.com



Feed The Children (사)한국위원회는 국제 어린이 구호단체로서 식량 지원, 영양 관리, 재난구호, 교육프로그램, 시설 지원 등으로 복합한 국외 사업을 행하며, 국내 이주민 가정의 어린이들을 섬기며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20억의 인구가 충분한 영양을 보장 받지 못하는 가운데 Pandemic으로 1억 3천만 명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나눔이 더욱 필요합니다

(사)피드더칠드런 한국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명학로 66-16 / 전화 031.381.1474
<http://feedthechildren.or.kr>



이주민이 말하는 한국의 의료행정

“도움 주신 분 통해 ‘십시일반’이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최 근에 어린 자녀의 탈장을 치료한 카메룬 국적의 이주민 알렉스를 만났다. 슬하에 두 자녀를 두었는데, 각각 한국 나이로 4세와 3세이다. 그는 주로 밤에 택배 회사의 물류창고에서 일하고, 아내는 주간엔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두 부부가 주야로 일을 하기에 아이들은 가까운 어린이집을 오가며 교육과 양육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두 부부는 아이들에게 소홀하지 않으려고 여러모로 애쓰고 있다. 기자가 찾아간 알렉스의 집은 방이 두 개 있는 반지하였다. 깨끗하게 정돈된 집과 두 아이의 밝은 얼굴을 보면서 부부의 자녀 사랑과 성실함이 느껴졌다.

-한국에서 아들이 아팠을 때 어떤 치료를 받게 되었는가?

아들 제시(Jesse)는 한창 장난치며 쑥쑥 자랄 세 살배기 어린이였다. 그런데 지난 연초에 원인은 모르겠지만 탈장이 생겨 행동이 부자연스러웠고 아파했다. 한눈에 보아도 알 수 있었고 아이의 배 부위에 혹처럼 볼거져 튀어나온 탈장의 모습을 보면 걱정을 안 할 수 없었다. 코로나가 한창 진행 중인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지만 병원을 찾았다.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의사의 설명에 걱정이 앞섰지만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에 큰 문제

가 없을 것이라는 확신과 한국 의료진에 대한 신뢰가 생겼다. 만일 카메룬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면 훨씬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다. 이후에도 의료진들은 생각보다 더 친절했고, 모든 과정에 관한 설명을 아주 꼼꼼히 해주었기 때문에 아이의 치료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을 정도였다. 그저 어린 자식에 대한 안쓰러움만 가득했다. 의사들은 수술도 빨리 마쳤고, 이후에 입원 치료과정도 어려움이 없었다. 안산고대병원 의료진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다.

-한국에서 가입한 의료보험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는가?

그동안 우리는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꾸준히 유지하였는데 이것이 큰 힘이 되었다. 사실 이번에 청구된 병원비는 감당하기 어려운 큰 액수였다. 그런데 의료보험으로 인해 우리는 약 30만원 정도만 지급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참으로 다행이다. 2년 전에 유학생 중 하나가 추락하여 심하게 다쳐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라 치료비가 무려 8천만 원이 나왔다는 것을 들었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만일 우리가 이번에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않았더라면 큰돈



카메룬 국적의 이주민 알렉스의 가족 ©하소미 기자

이 필요했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였을 것이다.

한국은 의료보험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있다. 이 의료보험의 혜택은 의료진들의 수준 높은 의료기술만큼이나 꼭 필요하고, 우리 이주민들은 꼭 가입해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많은 이주민이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매월 지급되어야 하는 보험료가 부담되고,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비자 및 서류 문제로 인해 가입이 불허되는 상황이 많다. 매우 안타깝다. 이러한 이주민들의 형편을 고려하여 의료보험 등록을 허락해주면 정말 좋겠다.

-그밖에 덧붙일 내용이 있다면?

우리 부부는 아이가 탈장의 문제가 생겼을 때부터 주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주변 친구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때 우리의 소식을 먼저 알린 곳이 교회였다. 목사님은 우리의 상황을 교인들에게 알리고 함께 기도하였다. 특히 한인 성도들이 모금하여 경제적으로도 우리를 도왔다. 나는 ‘십시일반’이라는 말을 이때 배웠다. 한인 성도들이 큰 사랑으로 어려움에 부딪친 이주민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함께 그 짐을 지고 있다. 아마 다른 이주민들에게 문제가 생겨도 똑같이 도움을 전

할 거리고 믿고 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기자가 만난 알렉스에게는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은 후하게 평가되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그 혜택이 서류미비 이주민들에게는 여전히 등록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다. 아무쪼록 다문화 시대를 향하여 가는 대한민국의 의료행정이 좀 더 유연한 내용으로 변화되어 더 많은 이주민을 돕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해본다. 아울러 그 과정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한다.

하소미 기자

hexiaomei@naver.com





단기 1, 2년 선교사 모집

GC(Global Challenge) GA(Global Action)

사역지 : 남미, 로고스호프,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중동, 중앙아시아 등

지원 자격 : 만 18세 이상, 세례 후 6개월 이상 된 자 문의 : 031) 698.2372

지원 마감 9월 24일(금)	허입 시험 10월 2일(토)	허입 면접 10월 12-15일(화-금)	합격 발표 10월 18일(월)
--------------------	--------------------	--------------------------	---------------------

WWW.OM.ORG



기후변화와 이주, 우리의 대응

기후변화가 식량안보 및 지역 간 분쟁 위기 초래, 지역분쟁은 이주로 이어질 가능성 확대

이우성 대표



▪ (현) RISTI(Research Institute of Sustainable Technology and Innovation) 미래전략연구소 대표
▪ (현)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 (전)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연구위원,
▪ (전) 글로벌정책연구센터장
▪ Northern Illinois Uni. 경제학 박사(1998)

“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식량 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지역분쟁과 이주로 이어질 것이다. 이주자 선교는 이러한 기후변화 위기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아프리카와 아시아, 중남미, 태평양 도서 국가에서 발생하는 기후위기는 식량 위기와 더불어 많은 이주자를 낳게 될 것이고, 이는 다시 디아스포라와 이주자를 위한 선교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기후위기와 이주의 시대에 주님께 쓰임 받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란다. ”

2021년 8월 IPC-2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기후변화에 관한 제6차 평가보고서(Assessment Report 6th) 가운데 제1실무그룹(Working Group I)의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는 전 세계의 대부분 국가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이미 우리의 주변에 가까이 와 있다. 그러나 IPCC 제6차 보고서는 향후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의 온난화가 가져올 영향들에 대해서 평가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리고 IPCC 제6차 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기후변화의 현황과 미래전망은 암울하다.

제6차 평가보고서는 현재 대기, 해양, 토지의 온도 상승과 인류가 미친 영향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제시한다. 2011-2020년 지구 표면 온도는 1980-1990년보

다 1.09℃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1990년대 이후 빙하의 후퇴와 북극해의 빙하 감소는 인류의 영향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 2000년 기간 중 지구 표면 온도는 1970년 이후 가장 빠르게 상승하였고 지난 3000년 기간 중 지구 평균 해수면도 1900년 이후 가장 빠르게 상승하였다. 지구의 온난화로 인하여 발생한 기후이변도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 1950년대 이후 폭염과 가뭄 및 산불 발생의 복합기후이변 발생률과 관련 고온 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늘어나고 있고, 폭우와 관련한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등 이는 인류가 초래한 기후변화의 영향이 주된 요인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향후 기후변화와 관련한 예측은 더욱 암울하다. 평가보고서가 제시하는 이산화탄소와 관련한 최저 및 최고배

출 시나리오 등 5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미래 기후변화를 전망한 결과를 보면 모든 시나리오에서 2050년까지 지구 표면 온도가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향후 몇 십 년 내 온실가스 감축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21세기 중 지구온난화가 1.5℃ 및 2℃를 넘어서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온도 상승은 0.5℃가 높아질 때마다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된다. 기후변화로 인한 물순환이 가속화되면서 더 많은 지역에 강한 강우량과 홍수를 가져오게 되며, 지구의 물순환체계가 변화되면서 고위도 지방에서는 강수량이 증가하는 반면 아열대 지방의 강수량이 감소하면서 가뭄이 피해가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은 아프리카와 같은 저개발국가들에서는 식량안보 위기와 지역 분쟁위기로 연결되며 결국 지역주민들이 가뭄과 식

량난을 피해 도시로 이웃 국가로 이주하는 이주의 이슈를 낳게 된다. IMCCS의 2021년 보고서는 아프리카에서 높아지고 있는 기후 관련 안보 리스크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다. 아프리카는 2020년도에 COVID19으로 인한 팬데믹 질병만 아니라 메뚜기떼에 의한 농업 피해,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피해로 인한 식량안보 이슈가 심각해지고 있다. 2020년도 메뚜기떼에 의한 피해는 에티오피아, 케냐, 소말리아 등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주었으며 이와 더불어 지부티, 탄자니아, 우간다, 수단, 남수단 동부 아프리카 지역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사막 메뚜기떼의 아라비아반도에서 동부아프리카로의 이동은 해당 지역들에서의 과도한 목축과 산림훼손과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과 강수로 인하여 메뚜기떼가 활성화

할 수 있는 습도가 높은 환경을 제공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로 인한 동부아프리카에서의 피해는 2019~2020년 8.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에티오피아에서만 1백만 명 이상의 인구가 식량 원조가 필요한 상황을 초래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식량 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지역분쟁과 이주로 이어질 것이다. 이주자 선교는 이러한 기후변화 위기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아프리카와 아시아, 중남미, 태평양 도서 국가에서 발생하는 기후위기는 식량 위기와 더불어 많은 이주자를 낳게 될 것이고, 이는 다시 디아스포라와 이주자를 위한 선교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기후위기와 이주의 시대에 주님께 쓰임 받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란다.

MMTS4P

귀국선교사를 위한 이주민선교학교

필드 선교사님들의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귀국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내 이주민선교에 참여케 하심입니다. 위대국제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MMTS4P를 통해 귀국 선교사님들께 이주민선교사역에 대한 이해와 방법을 제시합니다. MMTS4P는 Prayer, Pre-Mission, Prizm, Peg 등 4가지 영역에서 10주 동안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서 로잔디아스포라 GDN과 NextMove, iCDM 그리고 주안대학원대학교에서 파트너십으로 함께합니다.

귀국선교사를 위한 이주민선교훈련학교
MMTS4P

- ✓ 정부정책
- ✓ 이주민신학
- ✓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선교
- ✓ 단일문화권에서 행하는 타문화사역
- ✓ 케이스 스터디 1,2
- ✓ 현장탐방 1,2
- ✓ 개인별 맞춤 선교 컨설팅
- ✓ 사역계획 등의 실제적인 커리큘럼

문의 : 임진숙선교사 010-7590-0691 / E-mail: imdivine@hanmail.net

위대국제선교회 GDN NEXTMOVE iCDM 주안대학원대학교 DIASPORA newspaper 디아스포라신문 대한국제선교연합회 KIMA

구전문화권 사람들을 위한 스토리텔링

청중들의 수준에 맞게, 그들이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가르치라

김연수 선교사



성경번역선교사로 파송되어 인도네시아, 이리안자야, 그웨르바부족 성경번역 사역(1990-2006)을 했고, 한동대, 통번역대학원, 응용언어학과 교수사역(2007-2010)과 KWMA의 국제총무 사역(2013-2015)을 했다. 현재는 SMI(스토리텔링 사역연구소)를 설립하여 대표로 사역(2011-현재)하고 있으며 AETA의 부대표로, AGST-Pacific의 부총장으로 사역하고 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사랑'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오"(막 4:33-34). 이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비유로 가르치셨다는 것이고, 더군다나 마가는 과장법을 사용하여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고까지 기록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그 당시 랍비들이 즐겨 사용했던 교육방법론 중의 하나인 비유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셨을까? 아마도 그것은 그 방법론이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의 90% 이상이 글을 알지 못하는 문맹인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시면서 지키셨던 원칙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청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수용자 중심'의 사역을 하셨음이 분명해진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그의 청중들의 수준에 맞게, 그리고 그들이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가르치신 것이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전달자 중심'의 사역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할 수 있다. 아니 때로는 전달자 중심인지, 아니면 수용자 중심인지를 생각하지도 못하는 가운데 사역을 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이나 그들의 수준에

“우리가 타문화권 사역을 염두에 둔다면 이 세상에는 훨씬 많은 사람이 구전문화권에 살고 있으며 심지어 문자가 사용되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그들 대부분은 구전적 의사소통을 선호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이 세상 사람들의 2/3가 그들의 교육 정도와 기간과 관계없이 구전적 성향을 가지고 있음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타문화권에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를 위해서는, 전체 내용의 75%가 이야기 형태로 되어 있는 성경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서의 이해와 미전도종족의 75%를 차지하는 구전문화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오랫동안 배워왔고 우리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삼는 사역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우리는 '문자문화권'에서 태어나 그 문화에 맞게 교육과 훈련을 받아왔기에 그러한 방법론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한 수단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타문화권 사역을 염두에 둔다면 이 세상에는 훨씬 많은 사람이 구전문화권에 살고 있으며 심지어 문자가 사용되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그들 대부분은 구전적 의사소통을 선호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이 세상 사람들의 2/3가 그들의 교육 정도와 기간과 관계없이 구전적 성향을 가지고 있음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타

문화권에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를 위해서는, 전체 내용의 75%가 이야기 형태로 되어 있는 성경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서의 이해와 미전도종족의 75%를 차지하는 구전문화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성경의 이야기는 그것이 배경과 등장인물과 구성과 수사법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성경 이야기는 특별하게도 성령님의 영감에 의한 것이어서 일반 이야기가 갖고 있지 않은 영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사건을 이야기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야기의 일반적 요소와 특별한 요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런가 하면 구전문화권 사람들은 의사소통과 교육에서 문자문화권 사람들과는 차이를 보인다. 구전문화권 사람들의 교육은 주로 경험을 바

탕으로 이뤄지며, 개인적이라기보다는 공동체적으로 수행된다. 추상적이기보다는 구체적인 표현으로 전해질 때 효과적이며, 순차적인 학습에 익숙하므로 사건의 시간적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이야기에는 단순한 정보만이 아닌 패키지 정보가 담겨 있어 다양한 정보들이 잘 짜여 있음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구전문화권 사람들은 모든 정보를 외워서 전달한다. 그러므로 전달자가 적어 놓은 것을 보고 말해주거나 읽어서 전달하면 그들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주민 선교에서도 이 원리를 적용하면 좋겠다.

타문화권을 넘어 다원주의 사회라고 여겨지는 주변 상황에서 이주민들에게 수용자 중심의 정보를 나누고 전하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제14기

이주민 선교를 준비하는 국내외 선교사들을 위한 특별훈련

알바트로스 한국어교사훈련

2021년 11월 22일(월) ~ 26일(금)
오전9시~오후5시

훈련내용 : 기초 한국어와 초·중급 동사과정 교수법
(30년 알바트로스 여학원의 노하우를 단5일에 전수!)

모집대상 : 국내외에서 이주민선교를 준비하는 사역자

모집정원 : 24명 / 준비물 : 필기도구

장 소 : 탐수양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로18길 23) T.02-355-1958

(장소는 코로나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등록방법 : 구글 사이트 제14기 알바트로스 한국어교사훈련 등록안내 설문 참조
(<https://forms.gle/XGLimW5zEb5AS82Y7>)

쉽고 혁신적인 한국어
재미있고 효과적인
읽기, 쓰기, 말하기를 위한
한국어 교수법

등록비 : 40만원(기존등록비 67만원)

14기 훈련에 한하여 최초로 알바트로스
본부에서 27만원을 특별 후원합니다

식사 및 숙박 : 개인해결

등록계좌 : 부산은행 101-2065-5716-09 (윤순애)

(수작업으로 제작되는 교재준비를 위해 11월 12일까지 등록비 입금 필수!)

등록문의 : 윤순애대표 010-2666-7255 / 황성숙센터장 010-4773-1738

김용준 14기 실행위원장 010-7938-1577

알바트로스본부
특별후원금
27만원



알바트로스 우리말센터 · 한국대학생선교회BI외국인사역부

다시 회자 되는 “내 탓이오”

정치와 사회의 위기... 크고 작은 리더십, 그 망가진 흔적들을 보면서

글 이창배 편집국장

최 근 유럽지역에서 사역을 마치고 귀국한 은퇴 목회자와 자리를 함께해 식사를 겸한 교제를 나눴다. 이따금 SNS를 통해 대화할 수 있었기에 이분이 가진 생각과 성향을 필자는 조금 안다. 현 정부에 대해서는 우호적 성향이 두드러진 편이다.

그런 그가 필자에게 뜬금없이 조금 과격한 글을 보내왔다. 그 글의 내용을 함축해보면 대략 이렇다. 우리 국민의 정치의식 수준이 후진국형이라는 취지의 글이다. 정치 지도자의 선택은 그가 국가의 경영을 그릇됨 없이 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국가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느냐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지난 과정을 살펴보고, 과실을 따져보고, 또한 지도자다운 인격과 도덕성을 가졌는지 살피고 검증한 후에 후보로 세우고 또 선택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적 총의를 모을 수 있게 된다. 소위 컨벤션 효과라는 게 나타난다.

그런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당리당락과 파벌에 따른 흑백논리에 이끌려 무조건적 지지를 보내는 일방통행식 선거풍토에 머리가 흔들린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진정 국가 지도자로서 일점일획 부끄러움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관심은 보이질 않는단다. 지도자 한 사람의 됴됨이와 청렴결백, 진실함과 능력에 대한 구분을 굳이 중요치 않게 여기는 것 같아 무척 실망을 느꼈다 한다.

분명 문제점이 있는데도 한 편이라 해서 무조건 옹호하고 감싸는 열렬 지지층의 정치의식은 정치 후진국 국민성인데 오히려 이러한 지적을 하면 죄인 취급 당한다면서 조금은 심한 표현을 썼다. 그의 글은 짙은 회한이 서려 있다. 그럴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오랜 해외 생활에, 특히 유럽의 정치와 선거문화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역시 오랜 세월 동안 해외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필자에게도 느껴지는 바는 비슷했기에 열른 수긍이 됐다.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K신드롬 현상이 날로 대단한 위세를 떨치는데, 유독 정치 문화는 후진성을 면치 못할까 알 수 없는 분노가 치솟는다. 권력이 날개나 되는가? 일반 서민들에게는 역 소리만 들려도 경기가 날 정도인데, 수천억 그 이상의 막대한 이익을 챙기도록 했는데도 당당하다. 인허가권이란 권력의 비호 없이 이런 일이 될 수 있겠는가? 누구에게 막대한 이익이 되겠지만, 누구에게 눈물 나는 강탈이 동전의 앞뒷면처럼 엮여있다. 지도자로서 응당 책임질 마음도, 가책



언택트(untact)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드러나는 정치결탁 사회 범죄는 엄중 처벌이 답이다.

도 없는 그 뻔뻔스러움에 기가 질린다. 이런 이가 어찌 국가의 지도자로 국민의 신망을 얻고, 또한 국가를 이끌 수 있겠는가? 뻔히 알면서 대선 후보로 밀어제치는 그런 정당의 오만함에 분노하지 않는 국민은 또 누구인가?

역대상 12:32 절 말씀이 떠오른다. “잇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이백 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라는 대목이 나온다.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라 했으니, 잇사갈 족속 가운데 개개인이 두드러지도록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를 개의치 않고 이름도 빛도 없이 민족과 나라에 충성했다. 최소한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작은 일에 충성한 간부들은 아

니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떤가? 진정한 지도자가 없음을 안타까워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 터져 나온다. 이백 명의 지도자는 고사하고 단 한 사람의 지도자라도 아쉽지 않은가? 쓸쓸한 이 현상의 이면에는 이상 열풍이라 할 만큼 정말로 쓸데없는 일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넘쳐나 보인다. 닥치고 성취와 성공이라는 번영 키워드가 교회를 비롯해 사회 전반을 뒤덮어왔다. 그러다 이제는 등산, 트로트, 먹방, 오락과 유흥으로 사회 곳곳에 풍요가 넘친다. 정치는 한낱 희화화된 패러디의 소재로 전락하고, 일반 대중의 정치 무관심은 언택트(untact) 뉴노멀(new normal) 시대로 접어들면서 더욱 가속화된 듯하다. 바꿔 보자면, 정치와 사

회의 위기 곧, 국가의 위기이다. 그 근처에는 크고 작은 정치 결탁 부패와 권력 남용의 추한 그림자가 어지럽게 널려져 있다.

“내 탓이오.” 이 말을 기억하는가? 오래전 IMF 위기 때, 우리 사회를 휩쓸던 말이 떠오른다. 그때 자신의 가슴을 치는 지도자가 있었다. 국가와 사회의 중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작은 지도자들은 어디에 있는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성실한 지도자들, 말은 바 작은 일일지라도 사회 각 분야를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일꾼들이 앞장서는 나라가 나라답다. 먼저는 교회로부터 시작해, 우리나라 전 영역에서 진정성과 실력을 갖춘 지도자를 찾고, 또한 세워야 한다. 그게 지금 당면한 과제이다.

NEXTMOV KOREA

Solutions for Diaspora Missions

NextMove exists to serve the global missions movement to more effectively engage in diaspora missions.

www.nextmove.net

이주민 선교 다이제스트

‘불법’ 대신 ‘미등록’이란 단어가 어떨까?

“외국인 근로자들의 불법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불법 체류자란 호칭 대신에 미등록 이주민 혹은 미등록 체류자로 바꾸어 부르면 하는 바램이 있다. 용어가 정체성을 확정하고, 언어는 행동과 사고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영화 <미나리>는 희망을 찾아 미국 이민을 선택한 어느 한국 가족의 삶을 그렸고, 이 영화로 배우 윤여정 씨는 제93회 아카데미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했다. 윤여정 씨는 수상 뒤 미국 영화예술아카데미가 마련한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무지개도 일곱 색깔이 있다. 무지개처럼 여러 색깔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지 않고 백인, 흑인, 황인종으로 나누고 싶지 않다. 우리는 따뜻하고 같은 마음을 지닌 평등한 사람이다. 서로를 이해하고 끌어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문화’라는 용어는 우리에게 더는 낯선 단어가 아니다. 하지만 단일민족이라는 금지 속에서 단일문화에 익숙했던 우리가 이주민을 대하는 태도에는 여전히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 의뢰해 2019년 7월 22일부터 9월 5일까지 이주민 3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을 한 결과 68.4%가 한국

사회에 인종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했다.

이주민들이 생각하는 차별 사유(중복응답)에는 한국어 능력(62.3%)이 가장 많았고, 한국인이 아니라는(59.7%), 출신 국가(56.8%)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56.1%는 반말이나 욕, 조롱 등 언어적 비하를 당한 적이 있었고, 사생활에 대해 지나치게 물어보거나(46.9%) 기분 나쁜 시선(43.1%)을 받았다. 성희롱이나 성폭행을 당했다는 응답도 전체의 7.1%였다. 인종차별의 사례를 보면, “남편 회사의 공장장이 한국 사람한테는 욕을 안 하는데, 남편한테만 ‘X새끼 왜 제대로 일 안하냐’고 말해요.”, “동사무소에 가면 사람들이 ‘난민 왔냐?’고 큰소리를 지르고 저를 보며 웃어서 기분이 나쁠습니다.”, “길을 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제 허리를 밟았어요.”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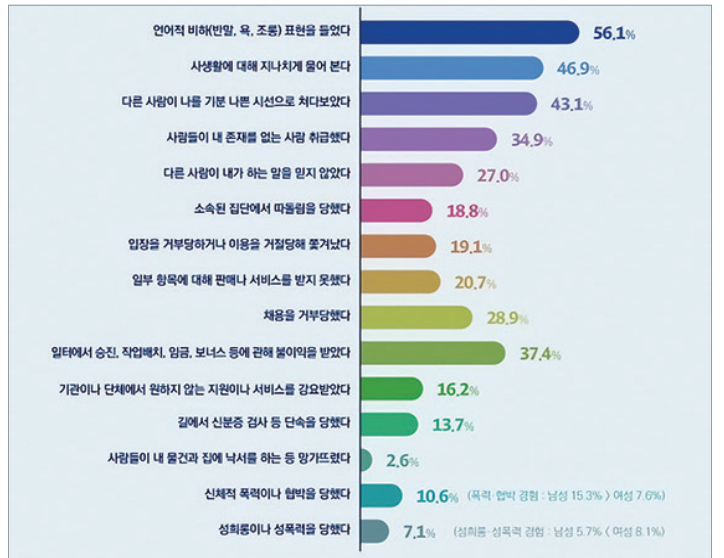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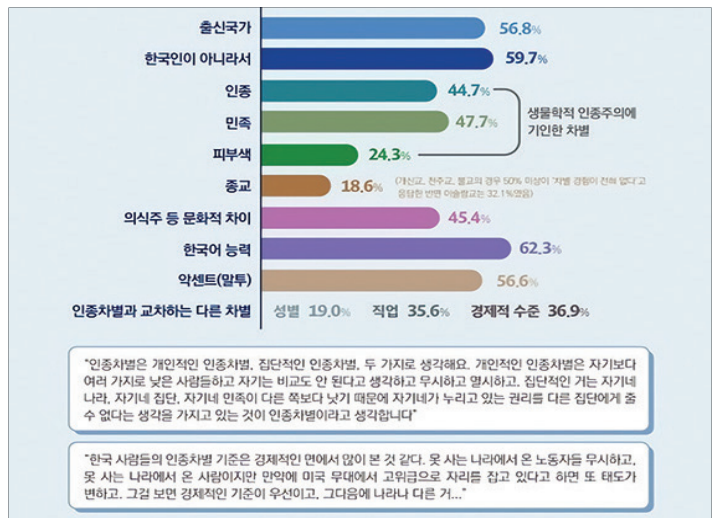
코로나 19는 이주민들에게 더 한 차별을 가져온 듯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20년 11월 27일 발표한 ‘코

나19와 이주민 인권상황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민 60.3%가 코로나19와 관련된 일상적 차별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차별을 경험한 장소는 대중교통, 식당, 가게, 목욕탕, 길거리 등의 대중시설(31.5%), 직장(18.9%), 의료기관(8.3%), 행정기관(6%), 인터넷 게시판 및 댓글(5.0%)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차별적인 요소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언어에도 나타난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부분 체류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한국에 더 남고 싶어 출국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이들을 그동안 불법 체류자라고 불렀다. 이렇게 호칭하는 정부 당국이나 언론을 찾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홀로코스트 생존자이며 난민이었고,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던 엘리위젤(Elie Wiesel)은 ‘어떤 사람도 불법이지 않다(No human being is illegal)’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불법’이란 수식어를 붙이면 나치가 유대인에게 저지른 일을 서슴없이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물론 외국인 근로자들의 불법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불법 체류자란 호칭 대신에 미등록 이주민 혹은 미등록 체류자로 바꾸어 부르면 하는 바램이 있다. 용어가 정체성을 확

한국사회 인종차별 현상 차별사유(표1) 및 차별유형(표2)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정하고, 언어는 행동과 사고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비전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는 주기도문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오는데 그중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마 6:11)가 있다. 예수님은 ‘나에게만 풍성한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가르치지 않

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양식은 단지 하루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식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조건들을 총체적으로 가리킨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한다.

김혁준 기자

loke0114@gmail.com

사랑의나눔

밥상과 마켓을 시작합니다

Shalom

예수님처럼 온 힘을 다하여 이웃을 돕고 나누고자 합니다
샬롬교회는 (사)사랑의나눔과 복지효율화를 도모하며 안산시의 민간협력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

설립예배 _ 2021. 10. 25
오전11시 / 설명회 오후1시

설립예배 및 설명회 장소 _ 샬롬교회 성전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시낭북로2길11)

(사)사랑의나눔 이사장 서 경 석 목사
(사)사랑의나눔 공동대표 / 샬롬교회 담임 이 제 순 목사

모든 상황을 선교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서는 위기를 통해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신다

박정곤 목사



· 고현교회 담임목사
박정곤 목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자람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열망하며, 가르치시며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던(마4:23-25)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W.I.T.H.” 비전으로 민족과 열방을 품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려는 비전으로 고현교회를 목양하고 있습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예수님을 믿은 후, 바울과 동행하며 예루살렘과 로마에도 함께 다니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누가’는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에서 병든 영혼에 치료의 광선을 전해주는 의사의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병든 자의 편에서 저들을 돕는 자로서 살았던 의사인 ‘누가’는 자신이 기록한 누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고, 귀신들린 여자를 고치시는 장면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창병에 걸린 병자를 고치시고, 열 명의 문둥병자에 대한 치유의 역사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사로서 ‘누가’는 예수님의 치유사역에 남다른 관심과 강조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누가’가 이 시대에 살고 있다면 최근 창궐하는 팬데믹 상황에 대해 그는 어떠한 관심

을 둘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류의 이주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보면, 흥미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이주와 전염병의 전파가 서로 관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모리 대학의 제후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2세기 로마제국의 장병들은 동쪽 지역을 정벌하고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천연두 바이러스를 가지고 로마로 귀환하였다. 안토니우스 역병이라고 불렸던 대역병은 25년간 지속하였고 최고조에 달했을 때는 로마에서만 하루에 2천 명이 사망할 정도였다. 이 병으로 인해 6백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했으며 이것은 당시 로마 제국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숫자였다.” 그러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이었고 잘 알려진 전염병은 1918년에서 1919년까지 창궐한 스페인 독감일

“아울러 20세기 초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인독감은 전 세계와 아프리카가 활발하게 교류할 때 발생하였는데, 아프리카를 초토화했습니다. 6개월 만에 아프리카 대륙 인구의 2%에 해당하는 240만 명의 사망자의 발생과 1,000만에서 1,200만 명의 고아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새로운 신앙 운동이 기독교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것입니다. 감염자들은 증상이 나타난 지 몇 시간 또는 며칠 만에 사망하였고, 전 세계 인구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5억 명이 스페인 독감에 걸렸고 그중 5천만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것은 대륙 간 이주로 인해 수개월 만에 전 세계에 퍼진 전염병에 관한 끔찍한 예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전염병의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당시 기독교인들의 행동입니다. 사회학자인 호드니 스타크에 따르면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끔찍한 환경에서 당시 기독교 공동체는 아픈 사람을 보살피주고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이교도를 포함한 박해자들을 오히려 놀라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로마인은 이러한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헌신하는 기독교 공동체의 헌신과 들려오는 치유와 기적의 소식들로 인하여 더 많은 회심자가 많이 생겼다고 설명합니다.

아울러 20세기 초 아프리

카에서 발생한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인독감은 전 세계와 아프리카가 활발하게 교류할 때 발생하였는데, 아프리카를 초토화했습니다. 6개월 만에 아프리카 대륙 인구의 2%에 해당하는 240만 명의 사망자의 발생과 1,000만에서 1,200만 명의 고아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새로운 신앙 운동이 기독교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초자연적인 치유 사역과 성령체험을 통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도의 기폭제가 되었고, 20세기 전반 아프리카 교회 성장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면 팬데믹 상황들을 통해 우리는 이주와 전염병의 확산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번 COVID-19 팬데믹은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이 전 세계를 이동하는 글로벌 시대에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순식

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주와 전염병의 역사적 예를 볼 때 현재 상황은 오히려 교회의 부흥을 이루는 축진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와 교회의 사회적 역할에서 위기가 복음 확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설명하듯이 예수님의 공사역은 말씀의 선포와 가르치심 그리고 병을 고치시는 일이었습니다. 마태도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마 9:35)고 기록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은 지금도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누가처럼 현재의 팬데믹 상황에서 고통받는 이웃을 향한 주님의 역사를 널리 전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주민 사역 파트너
diasporanews.kr



하나님의 기쁨과 자람이 되는 교회

고현교회

대한 예수교 장로회
www.gohyun.org

담임목사 / 박정곤

- 부목사 / 변건식 최윤갑 조생준 강성관 방영진 김준웅 서 훈 최기천 김승윤 문향기 강민환
- 기관목사 / 김성운 김옥천
- 장로 / 심종화 정해준 강현성 유진욱 이상호 박달수 원용삼 옥영섭 천경을 신득수 이창진 정달전
- 협동장로 / 임낙연 윤정명 ▪ 무임장로 / 김진욱 김성현 ▪ 원로장로 / 옥기철 옥금석
- 은퇴장로 / 김윤탁 박광윤 옥치안 이홍일 강영식
- 강도사 / 하진호 ▪ 전도사 / 안복희 강영애 ▪ 사역자 / 천영숙 오정미

2021년 고현교회 선교사 현황

- 파송선교사 21가정: 김경용, 윤보석, 황정대, 박진욱, 박변화, 고덕현, 윤상혁, 김 후, 김숙자, 조영태, 이철진, 김현철, 손상호, 윤 옥, 이진호, 김광선, 이임호, 김상민, 조운태, 박양제, 정보애
- 협력 후원선교사 213가정 25성공 ▪ 협력 후원 현지인 사역자 31가정 ▪ 협력 후원 선교단체 34기관

■ 경남 거제시 계룡로 11길 17-7(고현동) 전화 : 055~635~5511, 팩스: 055~637~5513

Part I 상황(Situation) 에피소드

가짜 결혼

글 문창선 편집인

외국인 근로자들 가운데는 결혼하지 않은 싱글들이 꽤 많다. 그들 중에는 서로 연애를 하며 동거를 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 따라서 교회에서는 동거하는 커플들에게 오히려 적극적으로 결혼을 하도록 권면하였다.

어느 여름에 마침내 첫 결혼 커플이 탄생하게 되었다. 수많은 동료들이 모여 축하를 해주었다. 첫 주례인 만큼 많은 준비를 했고, 또 첫 결혼식에 맞추어 가나의 혼인 잔치를 연상할 만큼 멋진 파티를 열었다. 그런데 며칠 후 너무나 어이없는 말을 들었다. “결혼한 새신랑과 새 신부가 각각 본국에 아내와 자녀들이, 남편과 자녀들이 있다” 무엇보다도 하객으로 참여한 모든 사람이 주례자인 본인만 빼놓고,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어찌 이럴 수 있는가?

결국, 나는 교회 안에서 부끄럽게 치러진 이 결혼식에 대하여 깊은 회개와 더불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새로운 일을 해야만 했다. 그것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 내에서 결혼할 시에 반드시 각 나라의 주한 대사관에서 결혼 가능한 서류 심사를 받고 확인서를 받아와야만 결혼할 수 있도록 한 것

“어느 여름에 마침내 첫 결혼 커플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런데 며칠 후 너무나 어이없는 말을 들었다. “결혼한 새신랑과 새 신부가 각각 본국에 아내와 자녀들이, 남편과 자녀들이 있다” 무엇보다도 하객으로 참여한 모든 사람이 주례자인 본인만 빼놓고,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어찌 이럴 수 있는가?”



이다. 이것은 지금 생각해 봐도 대단히 유익한 일이었다. 이것이 각 대사관에 공문을 할 때면 각 나라 대사관에서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그 일을 바로잡은 이후 더는 지난 결혼식과 같은 실수는 다시 하지 않게 되었다.

이처럼 그들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묵인할 뿐만 아니라, 문제로 여기지 않고 있던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정서를, 한국 내에 머무는 동안 고쳐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감사했다. 그것이 은혜의 견인이 아니겠는가?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

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롬 15:16)

3주(週)짜리 목사

사역이 점점 커지면서 각 지역으로 펠로우쉽이 세워져 갔다. 그들을 다 관리할 수 없었기에 본국으로부터 사역자를 추천받고 한국에서 자국인들을 위하여 일하도록 했다. 어느 날 나이가 어려 보이는 젊은 목사가 추천되어 왔다. 그를 오산지역의 어느 지역 펠로우쉽의 책임자로 파송을 하고, 감당하여야 할 사역에 대해 지침을 일러 주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아주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것은 이 젊은 목사와 그 펠로우쉽에 나이 많은 어느 여성과의 동거 설이었다. 자체 조사를 해보니 과연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이었고, 이 나이 많은 자

매는 필리핀에 가정과 가족이 있는 자로 밝혀졌다. 이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었고, 반드시 고쳐야 할 일이었다. 이 일로 이 젊은 목사의 신원을 자세히 파악해 보니, 불과 3주 만에 신학 과정을 공부하고 목사안수를 받은 가짜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자격 미달의 사역자들이 지금도 외국인 근로자 사역을 위하여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으며 또 한 사역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신원 파악과 한국 교회와의 정보 공유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일 후에 국내에서 외국인 근로자 선교 사역을 하는 외국 사역자들에 대해 본국에서의 인정 서류를 요구하게 되었고, 또 사역하기 전 충분한 ‘인턴 과

정’을 실행하게 되었다.

복음 사기꾼들

작은 교회마다 방문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라 자칭하는 무리가 생겨나고, 그들에게 피해를 본 사례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그들의 수법은 전도자(Evangelist)란 신분을 밝히고 교회 담임 목회자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이었다. 선교라는 것과 또 찾아온 손님에 대하여 친절하며 섬기기에 열심인 교회마다 오히려 소중한 선교 헌금을 손실하고 심지어는 성구들을 분실하는 사태로 변해갔다.

피해를 본 교회를 찾아가 나름대로 몽타주를 만들어 여러 단체와 교회들에, 특히 경기관 일대의 교회들을 중심으로 팩스로 사진을 배포하며 주의할 것을 요청했다. 이 일로 인하여 그 거짓 사기꾼들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효과적인 외국인 근로자 사역을 병자한 사기행각은 끝이 났다. 이것은 오래전 일이기에 어쩌면 오늘날 전국적으로 흩어져 버린 외국인 근로자들의 상황을 이용하여 오늘날 더 활개를 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이런 일들을 보아서라도 모든 교회와 외국인 근로자 선교에 관심 있는 지역 교회들은 서로 협력하며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연재)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주안대학원대학교
JUAN INTERNATIONAL UNIVERSITY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선교중심의 세계적인 대학
온전한 헌신, 온전한 교육, 온전한 신앙

주안대학원대학교(JIU)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 능력을 갖춘 맞춤 교육을 통해 선교사와 “선교사를 지도하는 선교리더”를 양성하는 초교파 선교전문대학원입니다. 선교학을 배우려는 사람들에게 최적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박사학위(Ph.D)와 석사(MA, Th.M) 학위 과정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상담 및 문의

본교 홈페이지 www.jiu.ac.kr를 참고하시거나
교학처 (032) 446-5200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바위로 74번길 11(주안대학원대학교)

디아스포라 선교학의 초기 주창자와 로잔운동

선교하는 디아스포라... 지상명령 수행하는 일에 활발히 참여하거나 활동하는 흩어진 민족 집단

본장은 20세기 말의 세계적 이주 현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런 추세와 현실을 보다 계획적으로 연구해서 선교학을 형성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디아스포라나 이주 현상이 존재하지 않고는 디아스포라 선교학도 이주신학도 있을 수 없다. 이 선교학은 학문에 매진 신학자들의 이론적 추측으로 태동하지 않고, 오랜 세월 디아스포라 신앙의 실재와 이주상황에 참여한 사람들이 겪은 갈등, 경험, 간증의 열매라고 저자는 밝힌다. 인문학이 제공하는 디아스포라 이야기는 성경적, 신학적 해석으로 생명을 붙여 넣어지지 않고는 부분적이고 불안정한 뿐이다. 본장은 경험적 기술, 현상학적 분석, 그리고 신학적 해석을 유례없이 잘 통합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기독교인과 선교단체가 21세기 디아스포라가 주는 도전과 카이로스적인 기회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선교학자, 선교사, 신학자들은 선교학적 시사점을 기록하기 위해 노력했다. 초창기에 로잔위원회에서 디아스포라 선교를 주창한 사람은 LCWE 전 국제총재이자 2004년에 '글로벌 가스펠'을 저술한 톰 휴스턴과 2003년에 '이주모델'을 주장한 사무엘 에스코바이다. 복음주의 선교학자인 웨스턴 신학교의 에녹 완과 FIN의 사디리 조이 티라가 휴스턴과 에스코바의 생각을 발전시켜서 '선교하는 디아스포라'와 '디아스포라 선교학'의 정의를 도입했다.

이들은 선교하는 디아스포라를 '개인의 직업이나 속한 교단과 상관없이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일에 활발히 참여하거나 활동하는 흩어진 민족 집단'이라고 정의했다. 이에 따라 디아스포라 선교학은 '지리적으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룹 현상의 선교학적 연구 및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이는 전략'이라고 정의했다. 2002년 6월, 미국선교학회 연례총회가 '기독교 선교를 위한 이주의 도전 과제와 기회'라는 주제로 열렸고, 그 과정을 '미시올로지(Missiology)'라는 잡지가 펴냈다. 선교학자들이



“ 현대 선교학에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가는’ 전통적 선교 패러다임에 맞춰진, 그리고 ‘해외’대 ‘국내’ 선교를 차별화하는 경향성을 조정하는 일은 도전 과제였다. 하지만, GDN은 어느 곳에 있든지 디아스포라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동적 선교 모델을 장려하기 위해 투자했고, 이를 통해 이미 존재하는 자원을 사용함으로써 전통 선교를 보충했다. 동적 선교 모델은 이미 그 지역에 있는, 또는 배치될 준비를 하는, 디아스포라 기독교인을 공식, 비공식적으로(직업적 선교사 외에도) 훈련하는 일을 포함한다. ”

이미 배치된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서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의 거대한 잠재력을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국제이주를 추적하는 학문적 연구에 참여하는 선교학자들의 수가 늘고 있다.

2004년 태국 파타야에서 열린 세계복음화를 위한 로잔포럼에서 디아스포라 이슈 그룹이 발족했고, 2007년 로잔운동 회장인 더글라스 버드살과 국제분과장인 테스나오 야마모리의 지휘 아래, LCWE는 디아스포라 시니어 멤버(사디리 조이 티라 박사)를 임명하고, 사디리 조이 티라 박사가 2008년에 로잔 디아스포라 리더십팀 LDLT를 결성했다. 나아가 로잔 지도부는 LDLT로 하여금 복음주의 디아스포라 신학과 전략을 만들어 제3회 로잔대회에서 발표하도록 했다. 제안된 전략은 공식적으로 '디아스포라 선교학'이라고 불리게 될 예정이었다. 2009년, LDLT는 디아스포라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복음적 전략을 통합하고, 그 전략을 튼튼한 선교학적 틀 속에 세워진 성경적, 신학적 기반에 깊이 뿌리박고자 두 번의 컨설팅을 개최했다.

이 컨설팅에는 정부와 비정부 기구, 신학교, 교단 및 기독교 유관 단체들이 참가했다. 협의 회 결과 디아스포라 종족에 대한 정의와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정의, 그리고 디아스포라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기관, 그룹, 개인들에 대한 정의가 내려졌다. 나아가 학술기관에 참가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제3차 로잔대회 이후 디아스포라 선교학의 미래에 제기될 많은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로잔 디아스포라 교육가 협의회를 기획할 임무가 주어졌다.

2009년 11월에는 디아스포라 선교학을 위한 서울선언을 채택했다. 서울선언은 디아스포라 선교학을 “조국과 고향을 떠나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하나님의 구속적 사역을 이해하고 그 일에 참여하기 위한 하나의 선교학적 틀”이라고 재정의했다. 두 컨설팅을 통해 얻은 디아스포라 선교학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 복음주의 교회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 이미 현장에 존재하는 디

아스포라 기독교인들을 훈련해 공식, 비공식 차원에서 선교 동력을 동원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 선교 동력은 선교비자도 선교단체가 스폰서하는 국제이주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더욱이 하나님 나라 디아스포라 사역자들은 정치적 제한도 받지 않고, '단한 문'도 거의 없다. 마지막으로 디아스포라 사역자들은 협력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으로 존속할 것이다.

제3차 로잔대회를 마무리하며, 케이프타운 대회 이후에도 디아스포라 네트워크를 넓히고 디아스포라 의제를 기획할 수 있도록 글로벌 디아스포라 네트워크가 구상되었다. 이 네트워크가 제3차 로잔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특별히 구성되었던 LDLT를 공식적으로 대체하고 디아스포라 학자들과 실행가들로 구성된 국제자문회가 2011년에 결성되었다.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현재의 패러다임은 여전히 랄프 윈트의 민족 단위 및 복음에의 접근성에 기초한다. 하지만 디아스

포라 선교학의 관점은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국경이 없거나' 다국적이며, 세계적이다. 디아스포라 선교학의 패러다임은 '섭리에 따라 공간적으로, 영적으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고 따르는' 21세기 현실을 포함한다.

현대 선교학에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가는' 전통적 선교 패러다임에 맞춰진, 그리고 '해외'대 '국내' 선교를 차별화하는 경향성을 조정하는 일은 도전 과제였다. 하지만, GDN은 어느 곳에 있든지 디아스포라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동적 선교 모델을 장려하기 위해 투자했고, 이를 통해 이미 존재하는 자원을 사용함으로써 전통 선교를 보충했다. 동적 선교 모델은 이미 그 지역에 있는, 또는 배치될 준비를 하는, 디아스포라 기독교인을 공식, 비공식적으로(직업적 선교사 외에도) 훈련하는 일을 포함한다. 디아스포라 선교학이 실제로 무엇인지 묻는 사람들이 있었다. 기독교인 이주민 노동자들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많은 간증을 포함해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문헌이 증명하는 디아스포라 선교의 예는 많이 있다. 이 책은 사례연구를 통해서 그 작업에 힘을 보탤다. 디아스포라 현상이 점차 21세기 중요 쟁점으로 인식되고 있는 중에, GDN은 디아스포라 선교학을 복음주의 학술 기관 커리큘럼에 포함해야 할 시급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GDN은 디아스포라 선교와 디아스포라 선교학을 공식, 비공식적 차원에서 가르치는데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천명한 목표는 미래의 목회자, 국제적 사역자들, 선교사, 평신도 지도자들을 훈련하는 것이다. 계획적인 디아스포라 훈련은 노동자들을 '국경 없는 세계'에서 동적 선교를 하도록 준비시킬 것이다. <정리: '디아스포라 선교학' 번역자 문창선>

▶(연재)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황덕영 목사



본지 발행인

국제디아스포라선교센터(ICDM)
설립이사장, 새중앙교회 담임

이방인이 많은 갈릴리는 예수님 사역의 주무대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역 공간을 확대해서 보면 사역 지역은 갈릴리였습니다. 마태는 이사야의 글(사 9:1-2)을 인용하여 “이방의 갈릴리(마 4:14-16)”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정학적으로 갈릴리 지역에 이주민들이 많이 거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주 무대가 이주민들이 많은 곳이라고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며 하늘나라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순례팀들이 꼭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을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גבְרִית נחֻם)은 갈릴리 서북안에 위치한 곳으로서 예수님은 공생애 초기에 이곳을 근거지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장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머무시던 집이 있었습니다(막 2:1). 가버나움은 그 어느 곳보다도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들이 주로 이곳에서 집중되어 행해졌습니다.

열병으로 누워 있던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고(막 1:29-31),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으며(막 5:35-43), 손 마른 자를 치유(눅 6:6-11)하셨습니다. 또 왕의 신하의 아들 병을 낫게 하신 기적(요 4:46-53) 등, 많은 기적을 가버나움에서 행하셨습니다.

특히 중풍 병자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를 베푸신(막 2:1-12) 사건은 가버나

움의 사역 중 압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회당에서 선포하시며 병자들과 귀신들린 자들을 치유해주시고, 기도하시는 일상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공간을 확대해서 보면 사역 지역은 갈릴리였습니다. 마태는 이사야의 글(사 9:1-2)을 인용하여 “이방의 갈릴리(마 4:14-16)”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정학적으로 갈릴리 지역에 이주민들이 많이 거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주 무대가 이주민들이 많은 곳이라고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며 하늘나라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방인이 많은 갈릴리에서 병든 자를 많이 고치신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가 매우 큼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일상은 오늘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확장해 가야 하는 성도들이 일상에 담아야 하는 모습입니다. 즉 우리 주변의 이주민들에게 관심을 두고 저들의 질병 문제에 우리의 기도와 도움의 손길이 모여야 합니다.

국경없는의사회라는 단체는 “당신의 도움이 다른 세상을 만듭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국가나 민족, 인종, 종교

등을 초월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는 곳이면 세계 어느 곳이든 가서 도움의 손길을 주는 국제의료구호단체입니다. 주로 전쟁 피해자를 위한 활동을 하며 전쟁을 피해 고향을 떠난 사람들을 위해 임시로 머물 곳을 마련해 주고, 담요, 먹을 것, 생활용품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염병 치료 활동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땅 끝까지 나가서 행하는 분들의 수고에 저절로 머리 숙여집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사는 우리의 동네, 우리의 집 주변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주민들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팔 걷어붙이고 저들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전문 의료 시설로의 안내나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야말로 주님을 닮아 행하여야 하는 성도들의 사역이어야 할 것입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하신 능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아서 책망을 받습니다(마 11:23).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도 주변 이주민들의 상황에 무관심하고 도울 수 있는 손길을 내밀지 않는다면 주님께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훌륭한 의료기술과 시설 및 전문의료인이 갖추어진 대한민국 사회 안에 이주민이 아픈 채로 체류하고 있다면 주님은 매우 가슴 아파하실 것입니다.



Relief

Based on the nature of Sorok's clientele, the foundation provides temporary relief which varies from food, shelter and medical assistance. Sorok also launch short-term emergency relief projects under this program in times of calamity or disaster in the Philippines.

Rehabilitation

Sorok provides a 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program for social integration and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especially for persons affected with leprosy and homeless street people.

SUFI CORE PROGRAMS

Sorok encourages and help individuals to be empowered mentally, physically and spiritually through the following projects.

Empowerment

In line with the vision of the foundation, this program was created to ensure sustainability of the beneficiaries, the organization and even the helping mindset of the Filipinos.

Sustainability

SOROK UNI COMMUNITIES

- NATIONAL CAPITAL REGION
- SAN ANTONIO QUEZON PROVINCE
- REGION IV-B OCCIDENTAL MINDORO
- MCS PASOLOBONG, ZAMBOANGA CITY

기획특집 1 : 김동형 의사



이주민 의료선교에 헌신하고 있는 김동형 의사

만나교회 김동형 장로가 이주민 의료선교에 헌신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 때문이다. 그는 모태신앙이었지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건 서른이 넘어서다. 그때 주님이 주신 기쁨의 감격은 아직도 매우 생생하다. 그래서 기

도 중 하나님께 “제가 이제 무엇을 할까요?” 여쭙는데 계속 “선교”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당시까지 그에게 선교라는 개념은 해외에 나가거나 선교 헌금을 하는 것으로만 생각해왔다. 그렇게 선교에 대한 개념이나 경험이 희박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

“이주민들의 마음에 미소가 지어지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로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선교를 했던 것이 이주민 의료 선교 영역이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의 친구들은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물어볼 때가 있다고 했다. 그럴 때 그는 이주민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자신을 생각하면서 빙그레 미소 짓는 걸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흐뭇하다고 대답했다. 힘든 것보다 보람이 있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한 그는 의사로서 진료 중에 연락이 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주민들에게 개인 핸드폰 번호를 주지 않는 걸 원칙

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도 본국으로 돌아간 친구들이 어떻게 번호를 알아냈는지 전화를 줄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이주민은 미등록 이주민이 아니더라도 의료보험이 있는 경우에도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많다. 그들의 일이 끝나는 시간은 병원들도 문 닫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것도 큰 불편 요소이다. 또 병원에 속을 수도 있다는 불안도 상당하다. 이런저런 이유로 치료받기 어려운 이주민들에게 그의 의료선교 사

역은 이주민들에게 큰 위안과 도움을 주고 있다. 그가 의료 선교사로서 이주민들에게 가장 바라는 건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것이고 또 항상 그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런 소원과 함께 이주민들에게 건강검진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료상의 도움을 실질적으로 주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그의 아름다운 수고와 마음이 그리스도 사랑의 편지가 되어 더욱 많은 이주민에게 전달되기를 희망한다.

기획특집 2 : 한상환 의사



의료선교에 헌신하고 있는 한상환 의사

동대문에는 몽골 정부 산하 기관인 몽골 노동국 사무실이 있다. 노동국에서는 한국에서 거주하는 5만여 정도의 몽골 노동자를 관리하며 그들의 연금 가입 업무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몽골 이주노동자들 대다수가 이곳에 등록하고 연금을 받

고 있지만, 한국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마침 노동국의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 치료가 필요한 몽골인들의 도움 요청에 서울기독교의사회의 한상환 선생님이 응답했다. 서울기독교의사회에 소속된 각 진료 과목별 전문 의사 선생님들 10여 분들과 함께 팀

“어느 한순간도 보람되지 않은 순간이 없었습니다”

을 이루어 봉사하던 중 코로나 사태로 노동국 사무실에서 진행해오던 모든 진료는 중단된 상태이지만 언제 어디서나 마주치는 소외된 자들을 위한 진료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

시리아 난민을 치료했던 한상환 선생님은 의료선교에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다.

“의료선교라 하지만 환자들을 돌보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주민들은 각기 다른 나라별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아랍권 환자들의 경우는 서로의 감시가 심하여서 복음 책자를 받거나 설명을 듣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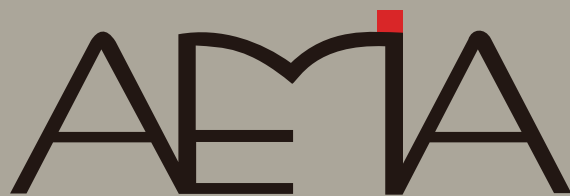
것만으로도 난처한 상황에 부딪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특별하고도 전략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바로 약을 가정으로 배달하는 것인데 그때 전도팀을 구성하여 의사 선생님과 아랍어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아랍 성도들과 짝을 지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몽골의 경우 공산국가이고 아랍권의 경우 종교로 결합되어진 사회라 이주민들의 국가적 상황과 특성에 따라 복음을 제시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야말로 상황별 맞춤 전도가 필요한 것이다. 1991년 구

소련이 해체되면서 선교의 문이 열렸던 공산국가 몽골 선교사로 갔던 한상환 선생님은 마음에 의술을 통한 선교를 언제나 가지고 이주민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방문하였던 것이 어느덧 40년이 다 되어간다. 40년 그 짧지 않은 여정 속에 소외된 이웃을 치료하며 나눈 감격과 감사를 어떻게 짧은 시간 한정된 지면에 담을 수 있을까? 어느 한순간 보람되지 않은 순간이 없었다는 짙은 한마디가 깊은 울림을 남긴다.

아에타 인준 프로그램 Accreditation Program

1. 훈련/수료 프로그램 (Training / Certificate Program)
2. 디플로마 프로그램 (Diploma Program) - 준 학사 학위
3. 학사 및 신학사 과정 - B.A, B.Th, B.Cm, B.Miss, B.Ce, B.Min, B.Coun 등
4. 대학원(Graduate School) 과정 - M.Div/M.Div equi., M.A/M.A equi., Th.M/Th.M equi., D.Min, D.Miss 등



선교지 신학교 인준단체 아에타 AETA

Association of Educators and Trainers in All-tribes

AETA는 선교 현장에서 지도자 양성을 위한 학교들을 설립하고 운영하던 한인선교사들이 고 김활영 선교사를 중심으로 다수의 선교사들이 2004년 6월에 신학교육 포럼과 총회를 시작하면서 “AETA”라는 이름으로 탄생하였습니다. 그 동안 선교지 신학교의 학위 인준과 발전을 위해 협력해 왔으며 2021년 8월에 AETA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신학교 인준, 지역학 연구를 통해 70여 개의 컨소시엄과 인준 신학교 회원단체들의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 김의원 박사, 부대표: 김연수 박사, 이사장: 윤형중 박사)

한국본부 연락처
아에타의 법인
후원계좌

서울사무실 02-585-2447 / 010-6241-5324(김연수)

사단법인 에이스정보통신연구원 (대한민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단법인 등록 제 1977-01-0001호) <AIIS : AET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AETA법인계좌 : 사단법인 에이스정보통신연구원 - 국민은행 732401-00-003972

사단법인 에이스정보통신연구원 : 국민기업은행 928701-01-195419

AETA일반계좌 : 김성찬(AEA) 우리은행 1002-061-011335

HomePage : www.aeta.kr
E-mail : admin@aeta.kr
NAS자료실 : nas.aeta.kr

기획특집 3 : 희년선교회 (JMF)

의료 사각지대 놓인 이주민 돕는 희년의료공제회 운영

희년선교회(Jubilee Mission Fellowship)는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의 3D 중소제조업체, 농장, 공사장, 식당 등 대부분 한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에 종사하며 한국 사회의 저변을 떠받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세계복음주의협회(WEF)의 '74 로잔언약 및 '89 마닐라 선언에 나타난 복음주의적 신앙고백과 대도시선교(Urban Mission) 개념에 입각한 총체적 선교전략을 실천함으로써 외국인노동자들의 실제 상황과 이들을 위한 선교이론을 바탕으로 복음화함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노동자 전문선교회이다.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에 의하면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월 보험료 약 13만원)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불법 체류자)를 포함하여 여전히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주민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이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사단법인 국제민간교류협회 희년선교회는 의료사역에 힘써 왔다. 희년선교회의 사역은 크게 희년의료공제회, 희년공동체, 희년외국인상담소, 해외사역이 있다.

1995년 2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순수 민간영역의 상호부조형식의 희년의료공제

회가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상호부조형식의 의료공제회는 회원들 간의 협력을 통해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는 민간의료보험제도이다. 희년의료공제회는 무료건강검진, 무료진료소 운영, 의료비 지원, 응급의료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생 주지선 학생이 열악한 외국인 근로자 의료 현실에 대한 큰 부담을 느껴 친구들과 일반외과 김경국 교수를 만나 무료 진료소 개소를 논의하였다. 1993년 학생들의 용돈과 김경국 교수의 금일봉 그리고 인턴 선배들의 헌금으로 무료 진료소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안과장비, 위내시경, 자궁경부암, 혈액검사에 44명의 전문의와 150명의 의대생, 약대생, 중고생들의 순번제 봉사를 통해 매주 평균 6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와 자녀, 유학생, 난민, 다문화 가정의 의료 혜택을 받고 있다.

원본), 여권용 사진(2매), 가입비 10,000원과 월 회비 10,000원을 6개월 선납으로 한다(총 70,000원 필요).

(4) 응급의료비 지원

불의의 사고나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조속한 치료가 필요하지만, 고액의 치료비를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와 자녀를 대상으로 응급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희년공동체는 복음 전도, 성경 교육, 예배와 더불어 상담과 진료, 한국어 교육 등 외국인들이 처한 실제적 문제에 접근하여 풀어내는 총체적인 선교활동을 펼치는 선교적 교회이다. 현재 13개 공동체가 있다.

이처럼 희년선교회는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이 땅의 나그네 된 이주민들의 인간성 회복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성 회복에 전념함으로써 전 세계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 핍박받는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도록 하며 한국 사회가 이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버리고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맞이하는 비전을 품고 노력하고 있다. (문의: 희년의료공제회 02)854-7828 /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15길 14 덕우빌딩 2층 / <http://jubilee-medical.org>)

조훈정 기자

chohunjung@hanmail.net



무료진료소_희년의료공제회 홈페이지 갈무리

(1) 무료 건강검진

외국인 근로자들의 질병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연 1-2회 정기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2) 무료 진료소

1991년 한국누가회 집회에서 이문식 목사의 대도시선교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강의를 들던 당시 인하대 의대

약품을 준비하고, 한국누가회 기독의사들을 중심으로 희년 무료진료소를 개소하게 되었다. 평일에 의료시설에 접근하기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9개 진료과(내과, 치과, 한방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신경과, 신경외과), 8개 검사항목(복부초음파, 산부인과 초음파, 심전도, 심초음파,

(3) 의료비 지원

합법적인 체류비자가 없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537개 협력병원(28개 대학병원, 109개 병원, 400개 의원)을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회원들이 내는 회비를 모아 진료비를 지원하는 상호부조형식의 공제회이다. 회원 가입을 위해서는 여권(

**When you drink
Lost Tribes Coffee Co.**

coffee, it helps us share the hope of Jesus with Jewish communities and provides much needed medical care.

Order today at <http://bit.ly/lcffeeco>.

Ethiopia authentic coffee

LOST TRIBES
COFFEE CO.

하이웃이주민센터, "슬라바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그네 된 이주민들을 섬기며

글 김조훈 목사



하이웃이주민센터 대표

살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저희 하이웃이주민센터는 2016년 1월부터 지금까지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이 땅 가운데 나그네 된 이주민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우리 기관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주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역을 진행해왔고, 2019년부터 지역 내 이주배경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9년에 하이웃이주민센터 산하에 우리작은도서관을 설립하여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구소련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실, 특기 적성 교육, 진로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 산하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운영기관으로 등록되어 주말마다 온라인으로 이주민에게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며, 포항 장성교회 국내선교부의 지원을 받아 지



나그네된 이주민 이웃의 건강관리도 하이웃이주민센터의 주요업무이다



이주민 이웃의 자녀들을 돌보고 있는 하이웃이웃교회

역 내 이주근로자를 위한 무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에는 이주근로자들과 한국인 성도를 중심으로 경주하이웃교회를 개척하여 이주민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러시아권 성도 모임이 있고, 주일에는 한국어 예배와 영어예배를 드립니다. 처음에는 모임에 참여하는 성도가 많지 않았지만, 우리 기관에 아동을 보내고 있는 부

모임을 비롯해 알음알음 알게 된 러시아권 분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매주 평균 10여 명 이상 참여하는 그러한 모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모임 수 없고, 음식을 함께 나눌 수 없었지만, 간단하게 차를 나누면서 각자의 언어로 찬양하며, 간증을 나누면서 은혜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아프가니스탄의 사태를 보면서 함께 기도



나그네된 이주민 이웃을 돌보며 섬기고 있는 김조훈 목사

했고,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고향 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많이 감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세례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의 간증을 나눌 때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역사하시는지 마음에 감동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간증과 그들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이뤄가실지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사실 요즘 러시아권 사람들과 만나면서 자주 사용하는 러시아 말이 하나 생겼는데 그 말은 '슬라바 보고'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러시아권 성도님들이 항상 무슨 일들이 생기며 습관적으로 내뱉

는 말인데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이 있는 표현입니다. 제가 금요모임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바로 이 단어 '슬라바 보고'입니다. 아직 금요모임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이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이 모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온 이주민들과 살아가는 정주민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공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대면으로 진행하던 한국어 수업이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무료진료도 한 해 동안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예배모임도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위한 방과후수업은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중입니다. 이 모든 프로그램과 사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To-Plate

천혜지역 호주의 먹거리는 우리의 건강을 지원하며, 식탁을 풍성하게 합니다.

전 세계 가족들을 더욱 행복하게 하는 To-Plate는 한국에서도 직접 구매가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문의 010-6342-0691



At To-Plate, you will learn unique stories of passionate Australian producers and be able to buy their artisan food & beverage products via our online grocery store. The best part? We'll deliver the treats to your door.

“옆집에 이사 온 열방을 위한 연못선교”

“ 현재 국내에는 30만 명 이상의 이주 무슬림이 있다. 이슬람연합회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등록된 이슬람 사원은 23개이며, 무쌀라(소규모 예배소)는 221개에 이른다. 한국인 무슬림(코슬림)도 이미 7만 명을 넘어섰다. 국내 선교를 이야기할 때 무슬림 선교를 빼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한국과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절체절명의 위기를 인식하고 사명감으로 대처해야 할 때이다. ”

김해시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슬람협력기구(OIC : Organization of Islamic Cooperation)에 속한 나라의 이주민 수는 6,027명이며 우즈베키스탄 무슬림이 2,345명으로 가장 많다. 김해에 있는 무슬림 사원은 총 5개이며 그 중 가장 먼저 문을 연 곳은 우즈베키스탄 이슬람 사원인 ‘알 부하리’이다. 이곳에서 매주 150여 명이 예배에 참석한다. 이외에 인도네시아 사원이 두 곳, 방글라데시 사원과 파키스탄 사원이 한곳씩 있다. 이슬람 기도 시간인 금요일 낮에는 밀양, 양산, 부산, 창원, 함양 등 여러 도시에서 온 무슬림 노동자 천여 명이 사원을 찾아온다.

김해 무슬림을 품는 정요셉 선교사 부부

정요셉 선교사 부부는 기독교 한국 침례회 해외선교회(FMB) 소속으로 1998년에 파송을 받아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서 교회를

개척하였다. 부부는 2018년에 안식년을 맞아 귀국하고, 부산에서 열린 세계선교대회(NCOWE VII 세계선교대회 & 7차 선교 전략회의)에 참석했다. 이 대회에서 주최 측 교회의 국제부 목사에게 부산·김해지역 이주외국인 상황을 듣게 되었다. 그는 교회 예배가 11개의 나라 및 언어별로 드러지는데, 12번째로 우즈베키스탄 외국인 예배가 생기기를 바라며 5년째 기도 중이라고 전했다. 정 선교사 부부는 기도 요청을 듣는 순간 주님의 새로운 부르심에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한다. 이렇게 정 선교사 부부는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20년간 사역을 하고, 국내 거주 우즈베키스탄인을 대상으로 사역을 전환하면서 센터를 세웠다. 필드에서 만났던 우즈베키스탄 사람들과 국내 우즈베키스탄 무슬림은 체감상 완전히 달랐다고 한다.

정 선교사 부부가 만난 국내 우즈베키스탄 무슬림들은

훨씬 독실하고 폐쇄적이었다. 그러나 지역 교회 집사들이 센터 봉사자로 동원되면서 사역의 열매가 풍성해지기 시작했다. 집사들은 주일마다 각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후 센터로 향하여 예배와 한글 수업을 준비한다.

오후 1시부터 간식 시간, 노래 교실, 생일 파티 등 다양한 활동이 이어지고 우즈베키스탄 아이들은 탁구와 체스, 젠가 등을 하며 즐겁게 시간을 보낸다. 한글 수업은 기초 수준부터 토익까지 네 개 반으로 나뉘며 약 25명이 수업을 듣는다.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센터에서 식사를 하고 간식으로 우즈베키스탄 빵도 먹는다. 이후 4,5명 규모로 우즈베키스탄인 예배가 드러진다.

정 선교사 부부는 우즈베키스탄인들에게 복음이 스며들 수 있도록 사랑과 환대로 그들을 맞이한다. 우리 곁에 찾아온 열방의 나그네들이 예수님을 만나 복음으로 세워지

고 선교사로 돌아가도록 만남, 섬김, 가르침을 나누는 것이 센터 사역의 궁극적 방향이다.

국내 무슬림 이주민 선교의 핵심은 협력

코로나19 여파 속, 김해에서 라마단 종료 기념행사로 천여 명이 집결하면서 집단 확진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우즈베키스탄인들은 김해시청의 중요한 관리 민족이 되면서 ‘이주민 바른 정착 프로젝트’의 첫 번째 대상이 됐다.

지난 7월 정 선교사는 ‘우즈베크케어센터’와 협의서(MOU)를 체결하면서 우즈베키스탄인들과 접촉할 방법을 더욱 확장하였다.

정 선교사는 “이 땅의 무슬림에 대한 대안은 행정과 관리 중심인 정부와 사회단체가 아니라 지역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어 “지역의 전문가인 모든 지역교회는 현장 선교사들과 연합하고 협력

하여서 필요한 자원과 인력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 선교사는 이러한 선교를 “옆집에 이사 온 열방을 위한 연못선교”라고 표현한다. 과도하거나 일방적인 사역은 서로에게 상처가 될 뿐 아니라, 무슬림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 한 사람의 변화는 그가 속한 가족과 마을, 문화와 공동체의 변화로 이어졌다. 우리 곁에 와 있는 열방의 손님은 개별적 존재인 동시에 하나의 문화 집단이기도 하다.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은 그 사람이 속한 집단으로 퍼져나간다. 무슬림의 숫자가 갈수록 늘어나는 이 상황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받아들이고, 지역교회가 더욱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협력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임진숙 기자

divinegrace2237@gmail.com



KALAYAAN CYBER CHRISTIAN NETWORK

KCCN은 미디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섬깁니다

미디어, 온라인은
흠어진 자들이 연대하고 훈련하며 사역할
효과적인 채널입니다.

WWW.YOUTUBE.COM/C/KALAYAANCOMMUNICATIONNETWORK
WWW.FACEBOOK.COM/KALAYAANCN

ghjeong@gmail.com

제주 안디옥교회-김규진·안춘옥 선교사

선교에 은퇴가 있나요?

“한 달 전 필자는 한 선교사에게 기도 요청을 받았다. 파송 단체 본부로부터 갑자기 은퇴를 준비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것이다. 칠십을 훌쩍 넘은 선교사는 올해 말이면 교단법 상 은퇴를 해야 한다기에 “선교에 은퇴가 있나요?”라고 되물었다.



김규진·안춘옥 선교사 부부

선교의 시작

1989년 한 손에는 아들, 다른 손에는 첫째 딸, 그리고 등에 태어난 지 1년도 안 된 둘째 딸을 업고 안춘옥 선교사는 필리핀행 비행기에 올랐다. 남편 김규진 선교사가 1년 먼저 필리핀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기에 더는 지체할 수 없었다. 이듬해 7월, 필리핀에서 진도 8.4의 대지진이 일어났다. 시체 썩는 냄새에 둘러싸여 구조 헬기를 기다려야 했고, 잔뜩 겁에 질린 세 자녀를 보며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들었다. 그러나 선교를 관둘 수는

없었다. 반찬을 만들어 판 돈으로 선교비를 충당했고, 카비테 빈민가 지역에 교회를 개척했다. 이후 현지인에게 교회를 이양하였고 1998년에 중국으로 사역지를 옮겨 소수 민족을 발굴하여 교육하는 팀 사역을 했다. 중국 생활은 늘 긴장의 연속이었다. 혹여 사역이 들릴까 봐 밤에 불도 켜지 못했고, 누군가 문이라도 두들기면 아무도 없는 척 숨을 죽였다. 탈북자를 위해 탈북 루트를 만드는 목숨 건 사역도 감행했다. 그러나 국내 모 방송사가 동행취재 중 약속을 어기고 탈북 루트를 방영했고 결국 2013년에 김 선교사 부부는 중국에서 추방되고 말았다. 그 후로도 인도를 거쳐 베트남으로 향하여 선교를 하다가 안춘옥 선교사의 건강 이상으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제주도 중국인 노동자들의 엄마, 아빠

건강 회복차 제주도로 내려

간 김 선교사 부부는 중국인 노동자 상당수가 그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노동자들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고 역할한 일도 자주 당했다. 선교사 부부는 그들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에 조사에 나섰고, 한 중국인 목사가 ‘안디옥교회 사랑의 집’ 이름으로 사역을 하는 것을 발견했다. 8명 남짓한 성도들이 작은 건물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는 순간 부부의 마음에 결심이 일었고, 머지않아 도움의 손길을 받아 중국인들을 위한 미션하우스가 설립되었다. 기존에 사역을 해왔던 중국인 목사는 담임 목사로, 김규진 선교사 내외는 선교목사로 동역했다. 안춘옥 선교사는 일터에서 끼니를 챙길 수 없는 중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큰 솥에 찌개를 끓이고 그들을 대접했다. 두 선교사는 중국 이주민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었다. 가족 같은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사람들은 점점 몰려들었다. 일일 용역을 마치면 매일 저녁 성경 3장씩 함께 읽었고, 예배를 드리자 공동체 안에 ‘예수’의 ‘예’ 자도

모르던 이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는 자가 생겨났다. 중국 현지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 그리스도인들도 입국하면서 안디옥 공동체를 찾았다. 담임목사는 예수를 영접하고 중국으로 돌아간 신자들이 지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하고, 신앙과 삶의 모범이 되는 성도를 집사로 세워 각 가정을 돌보도록 했다.

이 모든 사역은 현지 선교경험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김 선교사 부부는 말한다. 중국에서 선교사이자 나그네로 살면서 현지인에게 많은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중국인 근로자들에게도 환대를 베풀 수 있었다고 전한다. 현재 제주 안디옥교회는 여덟 군데로 나뉘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자 인도와 필리핀에 나가 사역을 하기도 한다. 때가 되면 비전선교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끝까지 선교

법무부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제주지역 등록외국인

은 2만 3천여 명에 이른다. 이들 중 중국 국적은 9천 명이 넘는다. 한국계 중국인 1천 4백여 명을 합하면 제주 거주 외국인의 절반에 가깝다. 여기에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 근로자들은 식당에서 일하거나 농사일, 일일 용역 등을 통해 생활을 이어나간다. 안디옥 공동체는 이들의 쉼터와 피난처가 되고자 한다. 또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제주 이주민들을 위해 제주지역교회와 기독교의료인의 협력 사역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다.

안춘옥 선교사는 “교단법 상 은퇴를 피할 수 없고, 이에 따른 후원도 중단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다. 하지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앞으로도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칠십 중반의 노부부 이주민 선교사는 이렇게 고백한다. “선교사는, 아니 믿는 자는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선교를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선교사에게 은퇴란 없습니다.”

임진숙 기자

divinegrace2237@gmail.com



제주도 중국인 이주민 사역에 동역하고 있는 김 선교사 부부와 성도들

VISION 전주비전대학교

한손에 성경과 한손에 기술을
전문인 선교사를 양성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전문인을 양성하는 전주비전대학교
선교와 기술을 융복합한 전문인선교사 양성과정
국제협력기술과가 열방을 품습니다.

신입생 모집 안내

입학정원 10명
입학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자

자격 조건

- 교회 및 선교단체 추천자
- 해외 거주 선교사 추천 외국인
- 선교에 헌신된 국내외 선교사

전형 일정

- 수시1차 : 9.10(금)~10.4(월)
- 수시2차 : 11.8(월)~11.22(월)
- 정시 : 12.30(목)~2022.1.12(수)

- ▶ 국제협력기술과 장학금 지원
- ▶ 선교 훈련 및 1인 1기술 전공제도로 전문인 선교사 양성
- ▶ 졸업 후 선교단체·NGO를 통해 장·단기 선교사 파송
- ▶ 협력 단체 및 기관
 - 두란노해외선교회(TIM)
 - 울네이션스 경배와찬양(ANM)
 - 위디국제선교회(Withee Mission International)
 - 국제개발 NGO 더멋진세상
 - 국제구호기구 Feed the Children, Korea

학교문의 우) 55069 전주시 완산구 천장로 235 / 국제협력기술과 063-220-3990~1 김미선 교수 010-7979-7743 / 선교지원처 063-220-3611 김영선 목사 010-7369-8550 / 홈페이지 http://www.jvision.ac.kr

기도 하는 마음으로 쓴 시

땅끝에서 온 이주민들 교회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기독교 역사의 변곡점



신화석 목사

AWMJ선교회(Antioch World Missionary Journey) 대표

그 때에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행 11:19-21)

오직 유대인의 하나님
유대인의 구주 예수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복음의 세계화

유대 기독교도들은 성령세례를 받았음에도
생각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동원됩니다
극심한 박해
그 대표적 사건이 스테반의 순교
그런데도 그들의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도망간 외국에서도
오직 유대인 전도

지금 내 생각이 내 신앙이
이때의 유대 기독교도들 같지는 않나요?
나는 성령 충만하고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몇 사람”에 의해
기독교 역사에 큰 변곡점을 찍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면서
복음의 세계화에 변곡점이 찍혔습니다

“몇 사람”이 전한 복음은
수 세기에 걸쳐 우리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고 지키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간증하는 것에
복음을 전파하고 나누는 것에
기쁨을 누리고 있나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 때문에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지키고 가르치는 것이
기도하고 응답받고 간증하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고 나누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어야 진정한 성도요
교회입니다

주여!
“몇 사람”으로 전파된 이 복음을
우리가 기쁨으로 누리며
교회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기독교 역사의 변곡점이 되게 하소서

AWMJ 200개국 기독교지도자대회

11월 2~4일 온라인 개최

‘안디옥에서 땅끝까지’ 표제,
‘신앙의 순기능 회복과 실천’ 주제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세계 200개국 기독교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200개국 기독교지도자대회’(200 Nations Leaders’ Missions Congress I)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열렸다. 대회 표제는 세계선교를 향한 간절한 염원을 담은 ‘안디옥에서 땅끝까지’(행 13:1-3, 막 16:15)이고, 주제는 ‘신앙의 순기능 회복과 실천’이었다.

이번 대회를 준비한 AWMJ선교회(Antioch World Missionary Journey, 대표 신화석 목사)는 안디옥성경교회 담임목사였던 신화석 목사가 1999년 전국 일주 전도 사역을 시작으로 5년간 준비 기간을 거쳐 2003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초교파 선교사역단체다. AWMJ는 2020년 3월까지 21차에 걸쳐 186개국에서 선교사역을 진행하고, 2025년까지 240개국으로 사역 규모를 확대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대회는 시공간과 언어의 장벽을 넘는 온라인 생방송으로 진행하였다. 매일 2시간 유튜브 생방송과 1시간 줌을 통한 대륙별 모임 등 하루 3시간씩, 3일간 열렸다. AWMJ는 200개국 사역을 보고하고 중간결산하며, 현재의 세계선교와 향후 미래 선교의 본질과 방향을 나누며 도전하였다.

AWMJ 측은 “이번 대회의 세계적인 규모는 ‘신앙 본질의 회복’이라는 AWMJ의 선교목표를 세계적 차원에서 구현하기 위한 외형적 틀”이라며 세부목표는 △세계 기독교의 현실 파악 △세계 기독교 운동의 본질 회복과 방향과 전략 제시 △성경, 기도, 전도(가정 우선)의 신앙운동이 땅끝까지 확장 계기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과 송출국의 선교협력 및 문화교류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국제환경에서 기독교의 역할 설정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 강사는 신화석 목사(AWMJ 이사장)를 비롯하여 최남수 목사(광명교회 담임목사, 세계기도자학교 대표), 김문훈 목사(포도원교회 담임목사, KWMA 부이사장), 에프라임 텐데로(AWMJ 국제자문위원, WEA 글로벌 앰버서더), 조나단 버니스(AWMJ 국제자문위원, 국제유대인의소리선교회 대표), 티비 토마스(GDN 대표), 존 백스터(넥스트 무브 대표), 다니엘 제아라즈(앤드루 월스 센터) 등이 나서며, 각 대륙에서 추천된 12명의 강사가 말씀을 증거하였다.

축사는 마이클 오(AWMJ 국제자문위원, 로잔운동 대표), 테드 아모리(AWMJ 국제자문위원장, 국제디아스포라선교센터 대표, 전 로잔 국제이사)가 전하였으며, 개회설교는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폐회설교는 강승삼 선교사(전 KWMA 대표회장)가 각각 증거하였다.

대회는 세계 각국의 시차를 고려해 아시아·오세아니아를 A지역, 아프리카·유럽·북남미를 B지역으로 나눠 진행하였다. 강의 외에도 지역과 세계를 잇는 다양한 자료와 전문가 그룹별 토의, 코로나19로 변화된 세계 상황과 기독교 본질을 회복하는 방향과 인식을 공유하였다.

이지희 기자
jsowuen@gmail.com

성경 기록된 최초 이주, 인류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

'창조물 다스리기'와 '영적 회복' 이 두 가지 이유로 아담과 하와가 이주를 하게 된 것

글 Dr. Tereso Casino



Gardner Webb University
선교학 교수, 위대국제선교회
국제이사, 본지 필진

성경은 이주와 관련된 모든 종류의 사건과 인물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 차 있다. 인류 최초의 이주를 한 이들은 아담과 하와였고, 이후 온갖 이주와 흠어짐이 일어났다. 하나님은 육지와 바다의 동물과 식물과 나무와 온갖 초목을 포함한 모든 생물을 창조하신 후 자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창 1:26-27). 인류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의 정점이 되었고, 일곱째 날 하나님의 창조 활동을 마치는 존재가 되었다. 아담과 하와는 모든 인류의 시조인 최초의 부부가 되었다.

창세기 1-3장에는 디아스포라에 대해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다. 그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다른 지역으로 어떻게 이동했는지 쓰여있을 뿐이다. 아담과 하와의 이주는 특수한 경험으로 치부되어

“아담과 하와가 원초적 성결한 상태를 더럽히고 도덕적 나침반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에서 ‘추방’하시고 경계 너머로 보내셨다. 이 추방의 시기는 하나님의 구속 행위와 일치한다(창 3:15-21). 추방과 다름없는 이주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일관적인 구속 사역을 뒷받침한다.”

정치적, 사회적 또는 인류학적 설명이 수반되어오지 않았다. 우리는 에덴 바깥 세계의 경험이 전무한 미숙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왜 흠으셨는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인간의 이주가 처음 발생한 이 사건의 배후에 이중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창조물 다스리기’와 ‘영적 회복’ 이 두 가지 이유로 아담과 하와가 이주를 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물을 다스리는 작업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내리신 중심되는 명령이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창 1:28). 인류를 대표하는 최초의 부부에게 주어진 이 핵심 명령은 죄나 불순종 따위로 폐기될 수 없다. 아담과 하와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일은 부수적인 요인이며, 그보다 중요한 창세기 1장 28절의 중심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에

덴을 떠나게 된 것이다. 그들의 불순종은 이 계획을 가속화했다.

아담과 하와가 원초적 성결한 상태를 더럽히고 도덕적 나침반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에서 ‘추방’하시고 경계 너머로 보내셨다. 이 추방의 시기는 하나님의 구속 행위와 일치한다(창 3:15-21). 추방과 다름없는 이주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일관적인 구속 사역을 뒷받침한다. 창세기 3장에서 알 수 있듯 하나님은 즉시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셔서 그들을 훈계하셨다. 형벌 이후에는 관계의 회복을 허락하셨고, 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셨다. 그들의 이주는 신성한 계획의 일부였다. 이렇듯 성경은 이주를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한다.

인류 최초 이주의 비관적인 면으로 아담과 하와는 무엇보다 본래의 고향을 잃었다. 성경은 에덴동산이 그들의 영원

한 집으로 의도되었는지 말하지 않지만, 그들이 쫓겨났다는 것은 안락한 거주지와 가족의 안정이 상실했음을 의미한다.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나기 전에 이미 타락했고, 에덴동산이 제공하는 풍부한 자원을 더는 누릴 수 없게 되었다. 일상을 지속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는 토양을 경작하며 열심히 일해야 했고, 파종과 수확을 하려면 계절에 따르는 법을 배워야 했다(창 3:19).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이주를 통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명하신 피조물의 청지기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었다. 그들은 에덴의 경계 밖에 있는 창조물의 광대함을 보았으며 만물에 대한 견해를 넓혔다. ‘쫓겨난 자’의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웠고 공예와 농업 기술을 개발했다. 에덴에서 여러 동식물의 ‘이름을 짓는 자’였다면 동산 밖에서는 그것을 ‘길들이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은 결코 아담과 하와를 버리지 않으셨고 은혜와 섭리로 인도하셨다.

우리는 인류의 첫 번째 이주에서 통찰을 얻어 현재의 삶을 점검해보아야 한다. 나 또는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디로 흠어지든지, 피조물의 선한 청지기가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현재까지 유효하기 때문이다. 우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 명령을 지켜야 할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아담과 하와가 경험한 강제 이주와 그 결과는 오늘날의 디아스포라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끼친다.

오늘날 어떤 이들은 환경 재해, 전쟁과 갈등, 종교적 박해, 인종 및 민족적 편견과 공격, 인신매매, 정치적 격변 등 이유로 비자발적 이주를 한다. 한편 더 나은 미래, 교육, 일자리 제안, 푸른 목초지, 경제적 기회, 자유를 찾아 자발적으로 떠나는 이들도 있다. 아담과 하와의 경우처럼 이주는 충격적인 경험이 될 수 있다. 본국을 떠나 낯선 땅에서 방황하다가 심리적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고, 극복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비관적인 측면 뒤에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늘 자리 잡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동 전, 이동 중, 이동 후 모든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하시며 새로운 만남을 맺어주신다. 에덴에서 추방된 후 아담과 하와가 셋(Seth)을 낳고 가족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한 것처럼 말이다. 성경은 “그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더라”(창 4:26)고 말한다.

이주민 사역 파트너
diasporanews.kr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Manna Mission Plan 67기 선발

MMP(Manna Mission Plan) 67기, MMP-W 3기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모집부문 및 지원내용

부문	대상	지원내용
국내 MMP	일반지역교회	아래 첨부
이주민 MMP-W	교회지원	
	기관지원	
	이주민선교 관련 기관	

국내 MMP ① 재정지원 2022년 1월부터 월 100만원의 사역 지원
② 인적지원 만나교회 교구(동산), 청년부, 선교팀 자매결연 - 예배 참석 및 전도대, 단기선교, 교회행사 지원
③ 목회지원 김병삼 담임목사와 함께하는 MMP 정기모임, 만나교회 7대 사역 매칭, 영성훈련(BTD, MDTs) 등 훈련지원

MMP-W ① 재정지원 2022년 1월부터 월 100만원(기관은 50만원)의 사역 지원
② 인적지원 만나교회 외국인 선교부 위원회, 선교팀 및 청년부와 자매결연
③ 선교지원 선교지와 사역 네트워크 및 추후 선교 센터 사역 연계

2 선발과정

- 서류접수마감 9월 25일(토)까지 이메일 접수 및 MMP 실무팀 앞 등기소인 해당일 까지
국내 MMP mannamissionplan@gmail.com / 이주민 MMP mannamissionplanw@gmail.com
- 서류접수내용 국내 MMP ① 기본신청서(신청서는 만나교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어플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목회계획서(MMP선발이 되었을 경우, 만나교회와 함께할 오프라인 사역 및 온라인 사역에 대한 계획)
③ 프리젠테이션 PPT(교회소개, 코로나 기간 중 진행했던 오프라인 사역 및 온라인 사역을 위한 프로그램 및 장비 운용 여부)
MMP-W ① 기본신청서(신청서는 만나교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어플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사역소개서(교회 소개 및 사역 소개 포함 / 기관인 경우는 사역 소개 포함)
- 서류접수결과 2021년 10월 2일(토) 만나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됩니다.
현장실사와 최종선발 세미나 (2021년 10월 중순 예정)를 거치면서 부적합할 경우 차점자를 통한 추가선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최종선발발표 2021년 11월 7일(주일) 만나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2022년 1월 이후 지원이 시작됩니다.

만나교회
담임목사 김 병 삼
1344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53
Tel 031-706-3351-8 / Fax, 706-3350
www.manna.or.kr

한인 디아스포라

대한민국 국민의 20% 정도가 크리스천이라면, 재외동포 중에도 약 20%가 믿는 자

글 장재중 회장



필리핀 거주, (주)유니그룹 회장,
소록유니재단 이사장

선진국 문턱을 넘은 대한민국. 이제는 예전보다 국내에서 외국인을 자주 볼 수 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다른 민족이 스스로 찾아오는 선진국이 된 것이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이전에 엄두도 못 내던 다른 나라에서 사업, 교육, 이주 또는 선교로 과감히 도전하는 한민족이 되었다.

한인 디아스포라는 약 8백만 명으로 전 세계에 퍼져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20% 정도가 크리스천이라면, 재외동포 중에도 약 20%가 믿는 자들이다. 미국의 재외동포 대다수는 교회에 출석하는 크리스천이다. 교회가 동포사회에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반면 중동, 동남아시아에서는 크리스천이면서 현지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동포가 많다. 현지 상황이 기독교 배경이 아니다 보니 신앙을 감추기도 한다. 이

“ 1994년에 필리핀 한센인들을 만나고 도우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필리핀 땅에 보내셨는지, 그리고 이국땅에서 펼친 사업에 복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사역은 2002년에 본격적으로 이어졌다. 소록유니재단을 설립하였고, 한센병으로 고생하고 사회에서 소외된 한센인들의 재활을 돕고있다...”



러한 나라에서는 교회가 동포 사회의 구심점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1984년에 필리핀 마닐라로 이주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으로 나를 흘으시고 필리핀 땅에 옮겨 놓으신 것을 깨닫기까지 무려 10년이 걸렸다. 낯선 이국 땅에서 초창기 사업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다. 하지만 사업이 성공하고 안정된 삶이 이어지면서 나의 피땀으로 이룬 성과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러한 교만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다. 이국땅, 다른 문화

권에서 살아가는 한인 크리스천 디아스포라라면 누구나 한번쯤 세상에 빠져드는 경험을 해보았을 것이다. 그럴 때는 내가 왜 이 땅에 있는지를 다시금 생각해봐야 한다.

개발도상국은 한국인에게 무한한 사업의 기회가 주어지는 곳이다. 우리는 이미 앞서 개도국을 경험해보았기 때문에, 사회경제가 앞으로 변화될 방향과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알 수 있다. 한국이 아닌 다른 선진국에서 온 이민자에게 주어지는 기회와는 다르다. 실제로 아시아에서 사업운영자 자리를 맡은

사람 대다수는 우리 동포들이다. 그들은 갑(甲)의 자리에서 사람을 고용하고, 현지 사회 활동에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크리스천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과 나눔으로 보여준다면 많은 현지인에게 하나님을 전할 기회가 생긴다.

슬립 한센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민다나오섬에는 '소록 MCS 마을'을 조성하여 크리스천 교육을 도입하였고 마을의 1/3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혼합공동체가 되었다. 노숙자, 소수종족 등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고 교육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지, 교회 안에서 되라고 하지 않으셨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지가 중요한 것이다. 특히 복음을 전할 목적이 있다면 더욱더 그렇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한인 크리스천 디아스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비단 전문 선교사들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의무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9-20)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대위임령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는 왜 지금 이국땅에 있는가? 지속적으로 자신에게 물어야 하는 질문이다.



예손치과의원

Since 1997

Jesus'hands Dental Clinic



원장 이 상 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8-3
유성트윈동관 304호 (서현역 이매촌 출구)

Tel. 031-704-2888

Fax. 031-704-2886

Mobil. 010-5704-2088

E-mail. matw2@hanafos.com

성실하게 한결같이 가족처럼 섬기겠습니다



이달의 영화 보기 추천



가버나움 (2018)

감독: 나딘 라바키/ 장르: 드라마/
등급: 15세 관람가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부모님을 고소하고 싶어요” 어린 소년 자인은 칼로 사람을 찌르고 교도소에 갇힌다.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자인은 법정에서 돌연 부모를 고소하고 싶다

고 말한다. 이유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자인은 부모가 이 끔찍한 세상에 자신을 태어나게 했다고 대답한다. 난민으로 사는 자인의 삶은 실로 참담하다. 전문 연기자 대신 해당 역할과 실제로 비슷한 인물을 캐스팅 한 영화로, 주인공 자인 역을 맡은 자인 알 라피아는 실제로 시장에서 배달 일을 하던 시리아 난민 소년이다.



미나리 (2020)

감독: 정이삭/ 장르: 드라마/
등급: 12세 관람가

<미나리>는 한국계 미국인 감독이 자신의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연출한 영화이다. 1980년대 아메리칸 드림을 좇아 미국 아칸소 주로 이주한 제이콥과 모니카 부부, 딸 앤과 아들 데이빗, 할머니 순자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남편 제이콥은 성공하겠다는 의지로 열심히 농장을 가꾸지만 생각대로 풀리지 않고, 모니카는 어린 아들 데이빗의 진료 문제로 하루빨리 도시로 이사하기를 원한다. 부부의 갈등은 한국에 있는 모니카의 친정엄마 순자를 미국에 모셔오는 것으로 이어진다. 영화는 각 세대가 이주민으로서 겪을 수 있는 녹록지 않은 삶을 담담하게 표현하고 있다.

권대식 수습기자
intruthinlife@gmail.com



크래쉬 (2004)

감독: 폴 해기스/ 장르: 드라마/ 등급: 15세 관람가

한슨은 선배 경찰관의 인종차별적인 행태를 참지 못하고 상관에게 근무 파트너를 바꿔 달라고 할 정도로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백인 경찰관이다. 어느 날 한슨은 흑인 청년을 검문하던 중 청년이 주머니에 손을 넣는 순간 총으로 그 청년을 쏘게 된다. 하지만 청년이 꺼내려던 것은 총이 아니었고, 한슨은 자신이 흑인을 향해 편견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주민의 수가 늘고 있는 한국에서도 많은 이들이 ‘인종차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그들을 편견 없이 대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만드는 영화이다.



완득이 (2011)

감독: 이한/ 장르: 드라마/ 등급: 12세 관람가

하 나님께 담임 선생님을 죽여 달라고 기도하는 고등학생이 있다. 바로 완득이다. 그는 선천적인 장애로 등이 굽은 아버지와 지적 장애가 있는 민구 삼촌과 함께 살고 있다. 생활을 이어가기에도 바쁜 완득이에게 성가신 참견을 해대는 담임 선생님 동주는 그저 원망의 대상일 뿐이다. 완득이는 어느 날 동주에게 완득이의 엄마가 필리핀 사람이라는 사실을 듣게 된다. 17년 동안 본 적 없는 엄마에 관해 알게 된 완득이는 엄마를 한번 만나보라는 동주의 제안에 당황스러워한다. 한편 동주는 낮에는 학교 선생님, 밤에는 이주민 노동자들을 돕고 있다. <완득이>는 이주민 노동자를 비롯한 소외당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따뜻하게 담아낸다.



방가? 방가! (2010)

감독: 육상효/ 장르: 코미디/ 등급: 12세 관람가

직장을 구하려고 할 때마다 낙방하기 일쑤인 방태식. 그는 5년 동안의 백수 생활을 청산하기 위해 특단의 방법을 강구한다. 한국인이지만 이국적인 외모를 지닌 그는 취업을 위해 자신을 부탄인이라고 속여 일자리를 구한 뒤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일한다. 영화 <방가? 방가!>는 88만원 세대의 아픈 단면을 보여주는 방태식과 동남아 노동자들이 하모니를 이루는 코미디 영화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모진 차별을 겪으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 영화는 외국인 노동자를 향한 차별과 냉대가 현재 우리 사회에도 존재하고 있지 않은지 질문을 던진다.

Jewish Voice
Ministries International



Jewish Voice Ministries International, Korea

우리는 예수의 구세주이심을 선포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16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세계 여러나라에 흩어져 있지만,
JVMI Korea는 특히 에티오피아와 짐바브웨를 주목합니다.
복음을 담아 구제하며 기동성이 빠른 이동클리닉을 통해
치과, 안과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육체적 필요를 지원하며
예수의 사랑과 소망을 나눕니다!

여러분도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www.jvmikorea.org

러시아 언어권 이주민을 위한 RUSTA



지난 28일 “RUSTA(Russian Speaking nations To All nations) 원데이 특강”이 열렸다. RUSTA는 러시아 언어권(CIS) 이주민과 사역단체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단체이다. 주한CIS목회자연합회, 온누리교회, 랜드마커미니스트리, 글로벌코어미니스트리가 연합하여 주관하는 RUSTA는 매달 전 세계 러시아어권 교회를 위한 특강을 실시간으로 송출한다. 10월 특강은 러시아인 목회자 아르조름 목사(글로벌승리교회)의 설교로 진행되었다. 아르조름 목사는 “그런 물을 내게 주사”라는 주제로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전했다. RUSTA 원데이 특강은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8시 RUSTA 인터내셔널 유튜브와 페이스북 채널에서 볼 수 있다. 러한 실시간 통·번역을 제공하며, 지난 강의 시청도 가능하다.

평창포럼 2021에서 세계 디아스포라 선교 지도자들이 이주민 선교로 사역을 전환하는 선교사에게 보내는 격려



티비 토마스 박사 Rev. Dr. TV Thomas
로잔 디아스포라(GDN)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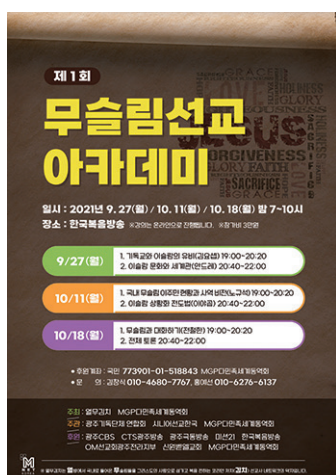
로잔 디아스포라 네트워크 임원진을 대표하여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수많은 선교사가 사역하던 곳을 떠나 귀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며 친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럼을 통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우실 것입니다. 돌아봅시다. 다시 사역의 그림을 그려봅시다. 다시 집중합시다. 그리고 다시 준비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기 위해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문창선 목사 로잔 디아스포라(GDN)
부대표, 위디국제선교회 대표

지난 30년 동안 한국 이주민 선교는 디아스포라 이주민 선교의 방향을 제시하는 좋은 모델이 되어왔습니다. 이번 평창포럼이 주마가편으로 더욱더 힘과 지혜가 모이고, 이주민 선교로의 사역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지역교회, 먼저 이주민 선교를 해온 사역자들과 함께 연합하여 열매와 결실을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열무김치와 MGP다민족세계동역회 주최 무슬림선교 아카데미 개최



최근 무슬림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열무김치와 MGP다민족세계동역회 주최로 제1회 “무슬림선교 아카데미”가 열렸다. 지난 9월 27일부터 시작된 아카데미는 매주 월요일 한국복음방송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기독교와 이슬람의 유비(김요셉) △이슬람 문화와 세계관(안드레) △국내 무슬림 이주민 현황과 사역 비전(노규석) △이슬람 상황화 전도법(이아곱) △무슬림과 대화하기(전철한) △전체토론으로 강의가 3주간 이어졌다. 광주CBS, CTS광주방송, 광주극동방송, 미션21, 한국복음방송, OM선교회광주전라지부, 신원벤엘교회, MGP다민족세계동역회가 후원하였다.

*열무김치: 열방에서 국내로 들어온 무슬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코리안 처치 선교사 네트워크

최근 무슬림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열무김치와 MGP다민족세계동역회 주최로 제1회 “무슬림선교 아카데미”가 열렸다. 지난 9월 27일부터 시작된 아카데미는 매주 월요일 한국복음방송을 통해

알바트로스 우리말센터 주최, 알바트로스 한국어 강사 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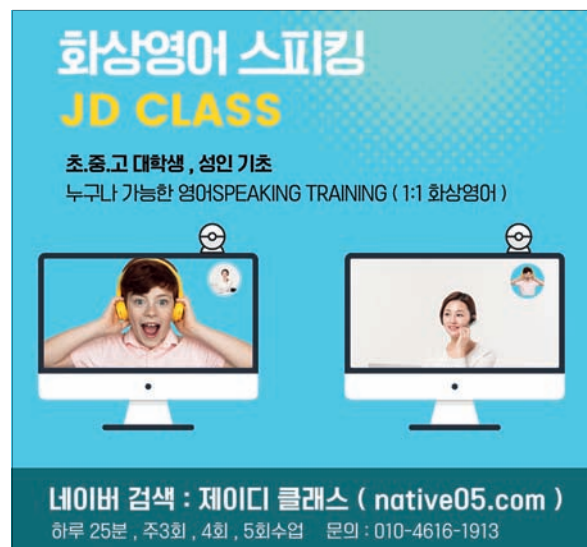
13기 알바트로스 한국어교사훈련이 11월 1일부터 5일까지 전주 장동교회에서 진행되었다. 훈련을 주최한 알바트로스 우리말센터(대표 윤순애)는 국내외 선교사에게 한국어 교육 훈련을 제공한다. 우리말 강사를 양성하여 주변의 이주민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센터의 목적이다. 한국어 교육은 눈과 귀, 입을 동시에 사용하여 한국어를 재미있게 가르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센터는 부산에 소재하여 전국구를 돌면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다음 14기 훈련은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서울(팀 수양관 예정, 변동 가능)에서 진행된다. 윤순애 대표는 “평창포럼 2021을 통해 이주민 선교에 더욱 큰마음을 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14기 훈련에 한하여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알바트로스 자체 특별 후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의 윤순애 대표 010-2666-7255 <http://albatrosskr.modoo.at>

목회자 훈련 프로그램

Train & Multiply 워크숍 개최

한국외국인선교회(Friends of All Nations, 대표 전철한 선교사)가 주최하는 제82차 “Train & Multiply(훈련과 증식)” 워크숍이 FAN예산훈련원에서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열렸다. Train & Multiply(이하 T&M) 워크숍은 이주민 사역자와 교회 개척자 및 소그룹 인도자를 훈련하는 교회 개척자 훈련 프로그램이다. T&M 프로그램은 63개의 소책자와 학생활동 가이드를 활용하여 목회기술과 필수적인 교리를 가르친다. 훈련과정은 성경적·경제적·실제적이며 현장에서 검증되어 도시에서나 시골에서나 모두 적용할 수 있다. T&M은 새로운 교회나 셀 그룹의 지도자들이 자주 경험하는 다양한 목회적 주제를 함께 나누고, 가정교회와 셀그룹의 증식과 성장에 중점을 둔다. www.fankorea.org

김필립 기자
weare1in7@gmail.com



한국은 이주민 선교 사역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주민 사역의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전도와 제자도를 통한 이주민 선교 사역을



불루스 갈라디마 박사 Dr. Bulus Galadima, 로잔 디아스포라(GDN) 협동 카탈리스트

하시기를 제안합니다. 두 번째로 이주민들이 직접 동참하여 확장해나가는 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주민 선교를 디딤돌 삼아 타문화 선교 사역과 연계하십시오.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선교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샘 조지 박사 Dr. Sam George, 로잔 디아스포라(GDN) 카탈리스트, 휘튼대 빌리 그래함 센터 국제디아스포라연구소 소장

현재 팬데믹으로 귀국한 한국 선교사들에게 다시 사역의 배치가 이루어지기까지 이주민은 최적의 선교 대상입니다. 귀국 선교사들은 자신을 파송한 교회 및 단체가 국내 이주민 선교사역에 참여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해외에서 사역을 해온 선교사의 타문화 인지와 언어 능력은 오늘날 한국 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한국은 선교 파송 국가일 뿐만 아니라 한국 자체가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 새중앙교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301/ T. 031-425-3000/ www.sja.or.kr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영어예배	주일 오전 10:30	선교센터 3층 301호	크리스토퍼리 전도사
어린이 영어예배	주일 오후 1:00	선교센터 3층 301호	크리스토퍼리 전도사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1:00	교육관 3층 고등부실	위다니엘 목사
어린이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3:00	교육관 3층 유년부실	신자설 전도사
베트남예배	주일 오전 10:30	비전센터 4층 가운데 402호	웅켄스푸 목사
인도네시아예배	주일 오전 10:30	비전센터 4층 가운데 403호	줄리아니 목사
북한선교예배	주일 오전 10:30	선교센터 3층 302호	유혜란 목사
중국동포예배	주일 오전 10:30	비전센터 5층	김육환 목사
몽골예배	주일 오후 2:00	비전센터 4층 가운데 402호	텔레레흐 전도사
일본예배	주일 오전 10:30	선교센터 3층 303호	남인 목사

» 수원중앙침례교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08/ T. 031-229-9000 온오프라인 동시 예배
www.central.or.kr

구분	시간	대상	사역자
영어예배	주일 오후 1:00	한국인	박승찬 전도사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한족	양아진 전도사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1:30	몽골인	잡할란 전도사
캄보디아어예배	주일 오후 1:00	한국인	김진완 목사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2:00	베트남인	원중빈 전도사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1:00	러시아인	김빅토르 목사
네팔어예배	주일 오후 1:30	네팔인	산제이 전도사

» 암미선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36번길 24/ T. 031-571-6554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	예배실	김영애 선교사
주일예배	주일 오후 2:00		
토요기도회	토요일 오후 7:00		

» 신창비전외국인교회

충남 아산시 신창면 서부남로 854/ T. 010-2287-9643
https://www.facebook.com/groups/1616235851794814/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예배실	박다니엘 목사
청소년예배	주일 오후 2:00		
아침기도회	월~금 오전 6:00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전 10:00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8:30		
성경공부	토요일 오후 7:00		

» 네팔노동자교회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126-1/ T. 070-8222-8345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네팔예배	주일 오전 10:00	예배실	이종만 목사

» 오륜교회

서울시 강동구 강동대로 235/ T. 02-485-4004/ www.oryun.org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제1교육관 4층 다윗홀	박지윤 전도사
중국어예배		본관 7층 다니엘홀	유요셉 목사
일본어예배		제1교육관 3층 요셉홀	이슬기로 목사
인도네시아어예배		오륜지역아동센터	테오피릴라 전도사
러시아어예배		오륜국제한가족센터	임혜림 목사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제1교육관 2층	차순현 목사
베트남어예배		오륜국제한가족센터	원튀탄튀 전도사

» 열린열방선교교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전1길 31/ T. 031-506-6044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스리랑카인예배	주일 오전 11:00	예배실	정진학 목사
태국인예배	주일 오후 2:00		

» 사단법인 올프렌즈

경기도 광주시 수하길11번길 2/ T. 031-762-2679/ www.allfriends.kr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캄보디아토요예배	토요일 오후 8:00	예배실	남궁성 목사
캄보디아주일예배	주일 오후 12:40		
베트남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전 9:00		

» 아시아인마음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185 한양빌딩 1층/ T. 031-753-0688/ www.ainma.org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대예배	주일 오전 11:00	예배실	조혜숙 목사
아침 특별기도회	주일 오전 10:00		

» 예송센터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시장로 38-4 무지개 아파트 505호/ T. 010-5541-4891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네팔어예배	주일 오전 10:30	예배실	박성규 선교사
네팔어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기도회	토요일 오후 9:00		

» 새생명태국인교회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남로 115 지하1층/ T. 070-7019-7792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태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예배실	홍광표 목사

» 꿈의교회

경기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131/ T. 031-409-9191 / www.dream10.org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영어예배	주일 오후 12:00	B1 Event Hall	현한나 목사

» 고현교회

경남 거제시 계룡로11길 17-7/ T. 055-635-5511/ www.gohyun.org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영어예배	주일 오후 1:10	본당 평강홀	최윤갑 목사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본당 바울관	강민환 목사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비전센터 바울관	강영애 사역자

» 대청글로벌미션센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온천천로 83 동행빌딩 5층/ T. 051-515-0191/ www.dgmc.co.kr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중국유학생예배	주일 오후 5:00	예배실	유근영 목사

» 안디옥인도네시아선교회(안산지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예술대학로 213-1 4층/ T. 031-492-2645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인도네시아인예배	주일 오전 11:00	예배실, 페이스북 생방송	정상엽 목사
수요예배	수요일 저녁 8:00	Zoom 예배	
토요예배	토요일 저녁 8:00	예배실	

» 하이웃 센터(Hi-Neighbor Center)

경북 경주시 한빛길 23 (3층)/ T. 054-772-0691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한국어예배	주일 오전 9:30	예배실	김조훈 목사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00		
금요모임	금요일 오후 6:30		

» 인천순복음교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화로 458 / 032-424-8511 www.hyo7.com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영어예배	주일 오후 2:30	글로벌하모니교회	칸아길 목사
영어예배	주일 오후 5:00	유학생센터	심복희 선교사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1:00	유학생센터	심복희 선교사

» 이주민월드비전센터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로 200/ T. 010-3198-9329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네팔예배	주일 오전 10:00	예배실	이익성 목사
다국적다문화예배	주일 오전 11:00		
아프리카예배	주일 오후 3:00		

»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2길 11 / 031-485-0955/ www.ansan1.org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1층 가나홀	로저 목사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2:00	브릿지센터 2층	박월성 목사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0:00	1교육관 3층	정은혜 목사
네팔어예배	주일 오전 10:00	1교육관 지하1층	라주라나마갈 목사

SCALA 스칼라요양원

SILVERSTAY

031-8045-9980

경기도 의왕시 갈미2로 40, 6층(내손동, 캠퍼스프라자)

노인장기요양보험

희희양락

최양락 팽현숙의
1호 요양원!



» 서울대 글로벌비전센터(Global Vision Center)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로4 아놀노타워 B1F / T. 010-2875-9639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한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예배를 사모하는 자	문성주 목사
글로벌(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열방을 섬기는 자	문성주 목사
아프리카예배	주일 오후 5:30	아프리카 섬기는 사람	테드, 문성주 목사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00	새벽을 깨우는 사람	문성주 목사
수요,금요기도회	저녁 8:00	기도하고 싶은 사람	문성주 목사
일대일제자양육	주일 오후 3:00	제자훈련 열정자	문성주 목사
세종한국어교실	주중	서울대유학생	그레이스 선교사

» 분당매일교회 살롬하우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초부로 107번길 10-7 티엘산업 / 010-3951-8680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스리랑카인예배	주일 오후 3:30	티엘산업 내 예배실	이창호 강도사

» 대구동신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학로 4길 39(만촌동) / 053-756-1701 www.ds-ch.org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성인영어예배	주일 오후 12:00	교육관 3F 303호	사무엘사 목사
중국예배	주일 오전 11:20	교육관 3F 302호	박영송, 평신월 선교사
베트남예배	주일 오후 12:00	참신관 3F	레종당 선교사
러시아예배	주일 오후 1:00	참신관 2F	텔마리나 선교사
중국어유치부(5-7세)	주일 오후 12:00	교육관 2F 205호	평신월 전도사
영어유년부	주일 오후 14:00	비전관 2F 믿음홀	비카토 전도사

» 대영교회

울산광역시 북구 상방로 180 / 053-756-1701/ www.daeyoung.org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외국인한글학교	토 오후 8:00	지하2층 교육실 (현재 코로나19로 예배가 없음)	이진옥, 김명규목사
	주일 오후 1:15		

» 열린교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39번길 31 / 1661-4372/ www.yullin.org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중국팀예배	주일 오전 11:30	새빛 빌딩 5층	

» 시흥네팔은혜교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396-7 401호 / 010-9463-5857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주일예배	주일 오후 12:00	예배실	단군와 목사

» 월광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염화로 31번길 7 / 062-375-0400/ www.wemwem.org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비전홀	박용범 목사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9:30	드림홀	김미리 목사
필리핀예배	주일 오전 11:30	드림홀	조해룡 목사

» 갯플리징교회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공원로 60번길 22 / 010-3633-0864/ www.godpleasing.modoo.co.kr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러시아예배	주일 오전 11:00	예배실	전득만 목사
다문화예배	주일 오후 1:30		

» 무지개다문화교회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중앙로 59-10 3층 / 010-3604-8139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다문화예배	주일 오전 10:10	선교센터 4층 비전홀	석창원 목사
	주일 오전 11:30		

» 안양제일교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정내로 140번길 11-10 / 031-449-1195/ www.anyangjeil.org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영어통역예배	주일 오후 2:00	본관 지하2층 평강홀	변상선 목사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2:00	본관 지하1층 세미나실	차성진 전도사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2:00	CM센타 3층	원주희 목사

» 예수향남교회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서봉로 117 / 031-354-9221 www.jesushn.com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발안회복교회	김영대 선교사
태국어예배	주일 오후 2:00	교육실1/ 1층	김남숙 선교사

» 남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19길 36 (반포동) / 02-2023-5600 www.namseoul.org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북한민예배	주일 오전 10:40	신교육관 F실	현정호 목사
영어예배	주일 오후 1:20	신교육관 G실	홍대영 목사
어린이영어예배	주일 오후 1:20	신교육관 B실	후이광 전도사
일본어예배	주일 오전 10:30	신교육관 E실	

» 하베스트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로 97-1 2층/ 010-2025-7123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다민족예배	주일 오전 11:30	예배실	송나무 선교사

» 호산나교회

명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6로 2 (명지동)/ 하단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1405번길 26 (하단동) / 051-209-0191/ www.hosanna21.com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인도네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2:00	명지 11층	마루아사스 목사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2:00	명지 4층	도홍년 목사
영어예배	주일 오후 12:30	명지 9층	이대희 목사
일본어예배	주일 오전 11:30	하단 5층	마영렬 목사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2:00	명지 9층	란천우 전도사

» 울산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푸름길 10 / 052-242-1171/ www.upcweb.net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12:00	학성동 377-23 3층 예배실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중국기독교회(북산동 506-2)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1:00	교육관1층 백합실	

» 울산베트남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로 189 / 010-7493-0080/ www.vfu.co.kr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토요예배	토 오후 7:00	베트남 문화마을	투언 목사
주일예배	주일 오후 2:00	예배실	투언 목사

» 시티센터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중앙길 91 서린빌딩 5층/ 010-9747-0316
https://ulinch0229.wixsite.com/ulinch?lang=ko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영어예배	주일 오후 2:30	예배실	신치현 목사

» 위디국제선교회

안양시 만안구 명화로 66-16/ T. 031-468-9191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카메룬예배	주일 오후 4:00	산소망교회	Jennet Eledi 목사
종보기도회	토요일 오전 10:00	ZOOM	임진숙 목사

이주민 예배안내 접수



※ 이주민 예배 안내를 원하시는 교회들의 문의를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담당 이진아 기자 izina@hanmail.net



HOME INFO.

국내 이주민 선교의 파트너
6 디아스포라신문
DIASPORA newspaper

발행인 **황덕영** 목사
편집인 **문창선** 목사

편집국장 **이창배** 목사
gypy227@naver.com
총괄본부장 **이승혜** 기자
seunghyelee@naver.com

편집국 기획부 **임진숙** 기자
divinegrace2237@gmail.com
편집국 사회부 **조훈정** 기자
chohunjung@hanmail.net
편집국 교육부 **하소미** 기자
hexiaomei@naver.com
편집국 인터넷 **민경일** 기자
piellove@naver.com
편집국 선교부 **김필립** 기자
weare1in7@gmail.com
편집국 **이상호** 객원기자
matw2@hanafos.com
편집국 **권대식** 수습기자
intruthinlife@gmail.com
편집국 **문예은** 수습기자
1215grace@naver.com

온라인 편집팀장 **김혁준** 목사
loke0114@gmail.com
행정/재정팀장 **이진아** 선교사
izina@hanmail.net
디자이너 **김기옥** 선교사
seuwandi@hanmail.net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안양 라00130
(정기간행물등록번호)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301번지/ 새중앙교회 세계선교 센타 508호
대표전화: 031-420-6311
이메일: witheeman@gmail.com구독 및 광고문의는 항상 가능합니다.
대표전화 혹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www.diasporanews.kr

K_디아스포라의
Now & Here
〈아이앤유크저널〉
inuc.net아이앤유크저널은 전세계 한인 디아스포라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언론문화 사역을 펼쳐갑니다.
gypy227@naver.com

PHOTO GALLERY

디아스포라신문 포토갤러리

오륜교회 의료선교대회 “이모저모”

미션 임파서블

covid19 시대에도 멈추지 않는
창의적인 국내 선교사역 대회장 전경

사진 © 오륜교회 사진팀 김원철 집사



KWMA 평창포럼 2021 “이모저모”



김필립 기자
weare1in7@gmail.com